

○ 서울대학교 박 ○ 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경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었다. 나에게 법원과 재판장은 한번쯤 꼭 가 보고 싶긴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직접 가보지는 못했던, 드라마에서나 보는 장소였다. 드라마를 보면 항상 엄숙한 분위기에 변호사와 검사가 증거를 멋있게 제출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엄하게 꾸짖는 장소가 법원이었기에 내가 드디어 재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들뜬 마음으로 첫 법정 모니터링에 임하였던 것 같다. 실제 재판은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어딘가 다르기는 했다. 판사님과 검사님들은 조금 지쳐 보이기도 했고,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이 연변이 뛰어난 변호사님들도 있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들리지 않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분들도 계셨다. 어떻게 보면 실제 재판은 내가 기대했던 만큼 멋있고 웅장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서 더더욱 법조인이 되고 싶어졌다. 나에게 법조인은 너무나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과연 내가 법조인이 되어 누군가를 대변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범죄자를 꾸짖고 심판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특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발표할 때마다 긴장감이 떨어진 나는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면서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항상 의심해오곤 했다. 그런데 실제 재판장에 가보니, 생각보다 그 분위기도 훨씬 편안했고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판을 보다 보니 법조인이라는 꿈이 더 확고하게 그려졌던 것 같다.

판결문리서치 역시 판결문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나에게 조금 어렵고 낯선 작업이었다. 판례를 찾는 것부터 판결 요지, 쟁점 정리 등을 글자를 처음 본 아이처럼 ppt 안내자료를 하나하나 따라하며 정리해나간 끝에 겨우 첫 보고서를 완성했던 것 같다. 그런데 첫 판결문리서치를 끝내고 나서의 생각은 '어, 재밌다.' 라는 생각이었다. 판결문에는 생각보다 사건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근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었다. 물론 법률 용어들이 많이 쓰여 사전을 계속해서 찾으며 읽어야 했지만, 어느새 판결문을 읽으며 혼자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며 의문을 표하기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판결문을 통해 내가 재판장에서 봤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며 재판을 머릿속으로 재현해보기도 했고, 내가 사건 당사자였으면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처음 한 판결문리서치가 너무 재미있었더니 결국 4개나 하게 되었고, 내가 향후 전문적으로 임하고 싶은 교육 관련 판례들을 다루면서 그 분야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어떤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지인의 추천을 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이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은 실제로 법조인이 되고 싶은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 주었고, 법학적 성시험을 앞두고 여러 고민에 빠져있던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시간이었다. 이 봉사활동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초심을 잃지 않은 채로 열심히 노력하여 나중에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법조인의 꿈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는, 멋진 법조인이 되어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 연세대학교 박 ○ 루

법률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도 벌써 4회차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성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는 국내외 사법제도·헌법 관련 번역 및 조사 활동 및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리비아 헌법 번역활동을 통해서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체계로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비아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법체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리비아의 헌법이 국가 재건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헌법이 단순한 법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과 국가 운영 원칙을 담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법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1조 제2항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을 조사하면서, 대법원이 기존 동기설을 폐기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확립한 점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2020고단1324) 관련 판결을 연구하며, 법 개정이 개인의 법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 법리적 정당성을 고민하는 과정임을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적 사고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률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게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의 사회 정의 실현 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 서강대학교 방 ○ 솔

2024년 겨울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어느덧 4학기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차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 봉사활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법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느낀다. 내가 이번 학기에 수행한 주요 활동으로는 아일랜드 헌법 번역,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및 분석이 있었다. 따라서, 각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배움을 차례로 정리하여 이번 학기를 돌아보고자 한다.

1. 아일랜드 헌법 번역

이번 학기에는 아일랜드 헌법 번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헌법 번역 작업을 수행하면서, 나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법적 개념과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그 표현 방식과 의미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보다는 법적 맥락을 고려한 번역이 필요했다. 또한,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아일랜드 헌법이 대한민국의 대륙법 체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법체계의 다양성과 특징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용어의 번역이 단순한 언어적 변환이 아니라 법적 해석을 포함하는 작업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2. 법정 모니터링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이번 학기 동안, 총 10회의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민사,

형사, 행정재판을 직접 방청하였다. 이를 통해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과 재판부의 심리 방식, 증거 조사의 흐름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해석과 손해배상 청구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판사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검사의 공소 유지 과정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행정재판에서는 국가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흥미로웠으며, 특히 법률의 해석이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10회의 방청 경험을 통하여 법조인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판결문 리서치 및 분석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중 가장 집중적으로 수행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및 분석이었다.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4건의 주요 판결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각각 업무상 배임(2023도11044), 송수관로 이설비용 분쟁(2022다25062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2024두32393), 항공사 마일리지 지급(2021다308030)에 관한 것이었다. 각 판결문을 분석하며, 판례를 통해 법률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업무상 배임 사건(2023도11044)에서는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배임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처벌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업무상 임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의 인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다. 송수관로 이설비용 분쟁 사건(2022다250626)은 공공사업과 사적 이익의 충돌에서 비용 부담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2024두32393)은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재판이었으며,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법리를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지급 사건(2021다308030)은 소비자 보호와 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판결로서, 기업의 약관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 결론:활동을 통해 얻은 배움과 소감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사법제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법률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적 논리의 구성과 판사의 판단 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일랜드 헌법 번역을 통해 법률 용어와 개념을 번역하는 것이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법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 포함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사고력을 기르고, 향후 법조인이 되거나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또한, 법률 소비자로서 권리 보호를 위해 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률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번 겨울학기 동안 수행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단순한 자원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나의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고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을 실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법률과 관련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하며, 법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다.

○ 연세대학교 박 ○ 우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두 번째로 참가하며 진행한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뜻깊었다. OT,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며 여러 면에서 배우고 성장했다고 느낀다.

우선 OT 과정에서는 저번 학기와 같이 보내주신 자료를 읽고 간단한 정답을 맞추는 회신문을 작성하였다. 주어진 자료들을 읽으며 민주사회에서 법의 중요성과 봉사활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단순히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통보받는 것이 아닌, 하나의 대학 교양 수업을 듣는 느낌이라 더 의미있었다. 이후 이번 겨울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인 법정 모니터링과 선택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

를 신청하여 봉사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4건의 형사법정 모니터링, 3건의 행정법정 및 민사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우선 형사법정의 경우 대체로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권과 묵비권을 보장하였고, 검사는 명확한 증거와 법적근거를 들어 피고인에게 형을 구형하였으며,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공소취지를 부인하거나 감형을 요청하였다. 행정재판 과정 또한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민사재판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여러 발견되었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판사와 변호인이 갈등하는 장면에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방청객은 재판에서 다루는 상황의 모든 요소들을 파악할 수 없기에 변호인과 판사의 논리 중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단정하지 수 없지만, 판사와 변호인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적절한 재판의 단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주로 청구취지의 합당성 여부로 갈등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 이전 청구취지가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또한 거의 모든 법정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방청석에서 제대로 들리지 않거나 검사의 발언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재판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은 서로 소통이 가능하였으나 방청객의 입장에선 다소 답답하였다. 따라서 판사석과 검사석의 마이크 볼륨을 올리거나 음질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4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하여 진행했는데 내가 맡은 판례는 <손해배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가을학기에서는 모두 형사 판례를 다루었던 반면 이번 리서치에서는 민사 판례도 다루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정리하고 각자의 법적 논거를 검토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동안 같은 판결문을 적게는 3번, 많게는 5, 6번 이상 읽으며 판결문을 소화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야 원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논거, 이를 판단하는 법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여러 이슈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형사 판례에서는 대체로 1심에 비해 2심과 대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는 비율은 50% 정도이며, 파기된 사건의 90%가 양형이 변경된다고는 하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판례의 경우 1심에 비해 항소심의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놀랐다. 그리고 이 점이 현재 법원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를 하는 재판당사자들은 1심에서 납득가능한 판결이 나와도 2심에서 더 형량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항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법원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크게 다르다면 어떠한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고려대학교 백 ○ 우

부전공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했던 나에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처음으로 봉사를 한 이번 겨울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 법률 관련 번역 봉사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수행했다.

우선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모니터링은 사법부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정모니터링은 총 9개의 다른 재판부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흔히 세간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이유로 판사를 모두 시로 대체해야 한다는 등 사법부에 대한 날이 선 비판을 하지만, 직접 재판을 들여다본 나에게 있어 판사는 재판의 진행자로서 재판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서로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내해주는 등 친절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해당 사건의 법리 판단에 있어 필요하지 않은 주장이나 증언을 끄는 모습은 흔히 말하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사람의 표상을 본 기분

이었다. 또한 재판부마다 하루에 많게는 열 건이 넘는 재판을 씹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음을 통감하였다.

법률 번역 활동으로는 이스라엘 기본법의 번역을 맡았다. 단순히 조항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한 탐구를 한 뒤 그 맥락에 어울리는 번역을 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특히 이스라엘이 독립 과정에서 정치적 분열과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통합된 헌법을 만들지 못해 여타 국가와는 달리 여러 기본법이 헌법적 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 깊었다. 또한 크네세트(국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구조를 가진 이스라엘의 기본법을 보며 삼권분립을 토대로 한 상호견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번역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법률 용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일이었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참고하며 최대한 실제 법전을 읽는 것과 같은 퀄리티의 번역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당자님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나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번역 활동을 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평소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판례들을 접하며 법적 지식과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형식적으로 법률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지속적인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고수하는 원고 측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제안 없이 그저 법리에 대한 오해를 근거로 파기 환송을 명한 대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나의 생각과 다른 법원의 판단을 접하는 것은 해당 주제와 법리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과 우리 사회를 보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 중앙대학교 허 ○ 원

로스쿨의 꿈을 꾸고,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시작하면서 편협했던 나의 세상이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 단지 티비와 매체로만 접했던 법의 세상을 이렇게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읽으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법원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압도감에 그저 지나치기만 하던 법원의 문을 넘어 재판 방청까지 다다를 때 심장이 쿵광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법정 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적이고, 넓었다. 재판 장소의 크기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어떠한 기준으로 사이즈와 배치를 정하는지 문득 궁금했다.

판사들의 캐릭터도 제각각이었다. 친근한 판사, 무서운 판사, 시큰둥한 판사 등등. 물론 대다수가 시큰둥한 표정과 말투를 지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에서 판사의 말은 곧 법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변호사, 검사, 증인 모두 판사의 눈치를 보며 그의 심기를 건들지 않도록 매우 노력하는 것이 보였다.

우연히 들어간 첫번째 법정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들렸다. 알고 보니 매우 유명한 사람의 재판이었던 것이다. 정치학과인 나를 이끌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졌다. 검사가 증인을 심문하고, 판사가 이를 지켜보는 이 재판 현장이 마치 나를 드라마 속으로 데려다 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해당 재판에 당사자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신기한 경험이었다.

또 다른 재판이 기억이 난다. 여자친구 폭행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인과 함께 법원에 온 것을 보고 판사가 예리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무언가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흥미진진한 사건이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여성. 그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디까지를 신뢰해야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이외에 민사재판에서 또 유명한 이름이 귀에 들어왔다. 바로 "롯데"이다. 대기업이 연루된 이 사건은 원고가 아주

억울해보였다. 원고와 피고 측에서 요청한 다양한 증인들이 등장했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진행되었다. 판결을 볼 수 없어서 무척 아쉬웠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사부, 행정부, 형사부의 재판 모니터링을 하면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 단순한 조문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법리적 논쟁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나아가 헌법 번역 봉사를 하면서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가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배웠다. 법을 해석할 때 당위와 가능성, 그 사이 어딘가 미묘한 지점들을 번역하면서 법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같은 단어도 다의어인 경우가 종종 있고, 아주 작은 차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쓰며 번역을 한 것 같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봉사활동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봉사였다고 생각한다. 겨울방학 봉사에 이어 1학기에 또 다시 봉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을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다.

○ 서울대학교 최 ○ 은

2024년도 겨울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진로를 꿈꾸고 있으나 평소 대학 전공이나 교양 수업 등에서 법 분야를 접할 일이 많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검색해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발견하게 되어, 이번 기회에 봉사활동을 신청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바로 법정모니터링과 법률번역 봉사였습니다.

우선,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총 9개의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며 재판부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대 근처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든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민사부와 형사부의 다양한 재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에는 행정이나 민사소액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아 해당 분야의 재판을 방청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으나, 민사부와 형사부에서 정말 다양한 주제의 재판이 열리고 있어 해당하는 여러 분야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법원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매우 긴장되었으나, 여러 차례 모니터링을 거듭할수록 주권 시민으로서의 뿌듯함이 긴장감을 압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법원의 재판부가 공정하면서도 꼼꼼하게 모든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재판의 분위기나 진행 과정 및 전문 법률 용어 등을 접하며 법조인이라는 목표 의식을 한층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과 더불어 진행한 법률번역 봉사활동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외국어 및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며 해당 국가의 법적 분위기나 문화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번역한 헌법은 아일랜드공화국, 키리바시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으로,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였습니다. 세 국가 모두 다소 저에게는 생소한 국가였는데, 번역 시작 전에 앞서 각국의 문화, 역사, 지리, 언어 등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정리하는 활동이 해당 국가의 헌법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 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헌법에 왜 이런 말을 서술하고 있는지, 어떤 구성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어 단순 번역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 감히 쉽사리 도전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모니터링과 법률번역 봉사활동 모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했던 활동이라 때론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봉사활동을 모두 마친 지금 시점에서 이전을 돌아보면 모든 힘

들었던 경험을 상쇄하는 뿌듯함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봉사활동이라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제공해주신 상세한 매뉴얼 및 친절한 답변 덕분에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만들어주었으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김 ○ 현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관련 활동을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2024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됐다. 처음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법조인을 목표로 할 뿐이지, 법적 지식 및 전문성은 전무해 내가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처음 들어가는 법정에서도 어색함과 그 엄중한 느낌 때문에 분위기에 압도 당하기도 했다. 용어 또한 일상적이지 않고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아 이해가 어렵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방청하면서 내용을 기록해보니 법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법이 점점 친숙하게 다가왔다. 민사 법정에서 가족 간 상속 문제, 형사 법정에서 사기에 대한 처벌, 그리고 행정 법정에서 부당 해고 등 사건들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엄중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논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적 질서가 구축되어 있음을 느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법에 대한 흥미를 자극시키는 좋은 시작이 되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 외에도 진행한 다른 활동들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먼저 번역봉사 활동에서는 이라크와 요르단의 헌법을 번역했었는데, 번역을 진행하면서 자유, 노동, 가족, 복지,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은 법이라는 안전망 아래 제공된다는 점을 느꼈다. 동시에, 지도자의 독점적인 권리나 전통적인 율법에 따른 처벌 등 차별적/반인륜적 권리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것을 보면서 법이 가지는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임과 동시에 권리를 해칠 수도 있는 무기였다. 특히, 현재 정치적 이슈와 연관된 사법적 질서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점이 더욱 강하게 다가왔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역제하기 위해 법적 질서를 긍정하고 엄격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주요 경제지들의 사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했는데, 언론사들의 1주일 치의 모든 사설들을 읽고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해야 하다 보니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했다. 분명 힘들고 어려웠지만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한 나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 또한 키울 수 있었다. 요즘 시대에서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알고리즘 등으로 인해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데, 이에 따라 개인도 영향 받아 한 쪽으로 치우쳐진 사고를 가지기 쉽다. 법은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한데, 만약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면 판결은 불공정해지고 올바르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굳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활동이지만,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낯설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고 학습한 것들은 모두 양분이 되어 법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법에 관심이 있으나 밑바탕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작점으로 추천하고 싶고, 이후에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신청해 더욱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싶다. 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이 ○ 승

2024년 봄학기, 여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에도 활동하고 싶었으나, 교내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가을학기는 쉬어갔습

니다. 중강 이후 다시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번 겨울학기에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선배님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 처음 신청하였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어 느덧 세 학기째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제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우리 사회 속 법률을 직접 느끼고 파헤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중략>세 학기째 꾸준히 하고 있는 판결문리서치 활동 역시 법원의 논리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 공부와 사회 활동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한양대학교 김 ○ 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통하여 겨울 방학동안 법률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총 64시간 7분, 즉 3847분 동안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각국의 헌법 번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과연 최소 인정 시간인 30시간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판결문을 읽고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하고, 번역을 위해 법률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고, 오히려 예상보다 두 배가 넘는 60시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발 30시간이라도 채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목표치를 상회하는 시간동안 법률 활동에 몸을 담갔다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정의 공정함을 판단하는 동시에 재판의 내용에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배운 법률 용어나 현행법들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들으며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금 복습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십 건의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 재판에 방청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국민의 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공개주의에 입각한다는 헌법의 문장을 다시금 떠올리는 나날이었습니다. 이러한 9번의 방청을 통해 법학에 대한 흥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재판 방청을 여러 번 하다 보니 법학에 대한 흥미가 다시 살아나면서 실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욱 깊고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학부에서 접했던 판례를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만을 읽으며 접했던 판례들을 원심 판결문까지 모두 읽어보는 경험은 저에게 매우 뜻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래된 판례에서는 한자가 가득해 읽기 힘들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판결문은 의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하여 우리 법원이 가독성이 좋은 판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사건의 전후 사정과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기에 마치 재판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정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병행하다보니 법이 우리 국민에게 작용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법학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최대 횟수인 다섯 번의 활동을 마친 후에도 더 많은 판례를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헌법 번역 봉사활동은 매우 진귀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 번 읽어봤지만, 다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리히텐슈타인, 리비아 등 생소한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그 나라들의 기본적인 정치체제와 법 체계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형태가 의원 내각제인 나라의 헌법은 우리나라와 매우 달라서 번역하면서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했지만, 점차 그 나라의 헌법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의 유사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은 각 나라의 정치체제와 주된 종교, 사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와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결국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헌법 번역을 하며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목적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저의 법률적 사고를 확장하고, 법과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이어가며,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더 구체화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경험들은 앞으로 저의 법학적 소양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최 ○ 아

지인의 추천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우연히 알게 되어 2024년도 가을학기부터 활동하게 되었고,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법정 모니터링 및 번역봉사를 하면서 이번 학기에도 계속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하는 봉사활동 기회를 계속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번역봉사와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여 이라크 헌법과 이스라엘 헌법을 번역하고,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다른 판결문들을 분석 하였습니다.

번역봉사에 관해서는, 지난학기에 많은 양의 번역물을 다뤄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다른 두 나라의 헌법도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다루게 된 이라크와 이스라엘은 서로 인접한 국가로서 각각 국내·외적으로 분쟁을 겪은 나라인지라 각 나라의 역사와 정치·경제·헌법제정적 배경을 찾아보는데도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평소 언론에서 해당 나라의 분쟁들을 접할 때도 그냥 무심코 넘기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번역봉사 기회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읽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내용을 균형있게 정리하기 위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읽으려고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서 자발적으로 더 찾아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문 번역 작업 자체에 관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법체계의 편/장/절/관, 조/항/호/목 등의 체계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영어로 chapter, '절'이 section, '관'이 sub-section이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체계는 나라마다 헌법을 적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헌법과 조금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헌법을 번역하다보니 이 나라는 단일헌법 제정에 실패한 후 헌법적 성격의 개별 기본법을 제정하고 통합하여 헌법처럼 쓰고 있다는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헌법이 건조하게 쓰인 글자들의 나열처럼 보여도 그 뒷 배경에는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해 본 판결문 리서치 봉사는 판결문을 고를 때부터 의욕에 넘쳐 화제의 사건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일단 가슴기살균제 사건은 피고인의 수와 피고인 측 대리인의 수가 굉장히 많은 데다,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 여러 과학적 자료들의 이해가 필요한 봉사활동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해 본 사람으로서 판결문 구조나 재판과정을 이해하는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 있어 난항을 겪었는데, 이러한 초보자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한 지침표와 설명이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소요를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판결문 분석을 통해 논증구조를 분석하고 법률용어에 익숙해지는 데 훈련이 되었고,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언론이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점에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며,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법

률 활동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University of Washington 박 ○ 인

지난 3개월 동안, 10건의 법정 모니터링 활동, 2건의 자메이카 헌법 번역, 3건의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법 수업이나 관련 활동을 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법률과 사법기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도하기 가장 어려웠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법정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며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지만, 정작 스크린이나 활자 속이 아닌 실제 법정에서 법조인이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할 때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익숙하지 않아 막막하기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가량 형사 항소 재판의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법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표면적으로 부당하게 느껴지는 진술임에도 이해관계와 공정성을 고려한 검증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형사 재판을 모니터링 하던 중,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당일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재판 신청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기에 당일 신청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과 증인, 추후 재판 사정을 고려해 결정을 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규정의 결여가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사고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모니터링 동안 법률이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윤리적 규범이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준이 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의 일상 속 자리잡은 책임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학문적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체력, 열린 사고력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저의 다짐을 다시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친숙한 주제였지만 소비자로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규정처럼 인식되어져 왔기도 했습니다. 제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논의된 쟁점들을 살펴보면 간과하고 있었던 소비자와 제공사 간의 관계와 규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문장이 길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과 함께 섞여져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시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결의 경우에도 기사에서 정리된 말로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원본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으며 피고와 원고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판결에 대한 근거와 결론을 함께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상에서 암묵적이었던 편향적이었던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판결문리서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였던 행정 사건과 택시운수회사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다룬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두 리서치 모두 특정 분야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다루는 판결이라서 첫 정독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계약과 관련된 것이었기에 표면적으로는 과거 두 당사자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기에 쟁점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후 여러 번 정독을 통해 잘 모르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간의 봉사활동은 과제라기 보다는 스스로 법과의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법은 단순히 따라야 하는 규정처럼 느껴지지만 했지만, 이번 활동들을 통해 법은 사회질서를 보완하는 도구이자 탄력성을 가진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 ○ 웅

대학과 대학원에서 몇 년간 정치외교학을 공부하였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니 역시 실재와 이론은 다르다는 생각

이 들었다. 이번에 참가한 봉사활동은 필수였던 법정 모니터링과 함께 언론 모니터링, 그리고 번역 봉사였다.

우선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실제로 방문한 법원은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막연히 머릿속에 그리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엄하고 중대한 사건들이 오가지 않았지만, 판결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빠르고 급하게 지나가는 순간들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조인의 태도도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재판관의 경우,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듯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하고 법률 용어를 질문하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욕박질렀다. 재판당사자가 사건과 상관 없는 말을 하면 가차 없이 제지하는 재판관도 있었다. 하지만 피고와 원고의 사정 하나하나를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와 조언의 말을 건네려고 하는 판사들도 있었다. 당장 업무와는 상관 없어 보이는 일들이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재판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고 감동받았고, 법조인으로서 중요한 것이 봉사자로서의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번역봉사에서는 이라크와 키리바시 공화국의 헌법을 번역하였다. 약 10년간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접할 수 있었던 헌법은 한국과 미국이 전부였는데, 생소한 국가들의 헌법을 읽고 해석하는 작업은 많은 공부가 되었다. 이라크의 경우, 테라와의 전쟁 이후인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전 정부 척결에 대한 조항이나 전쟁 피해자에 대한 조항이 많은 것이 흥미로웠다. 또한 헌법의 문법이나 구성 등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다른 헌법은 키리바시 공화국의 헌법이었는데, 키리바시 공화국의 경우 아예 처음 보는 생소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봉사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영연방의 일부이면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 공화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정치나 외교에 관한 조항은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 같았다. 대신 최근 독립한 키리바시 공화국은 시민권 취득에 관한 조항이 방대했다. 헌법이라는 하나의 문서만으로 한 국가의 역사와 관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마지막으로 언론봉사 분석 주제로는 한국의 반도체 정책을 선택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 수출의 실적과 전망,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최근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보수 언론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반도체 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진보 언론은 고급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삼 개월간 관찰해보니,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하고 사안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를 살펴보고 교차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2024 겨울학기 봉사 활동에 참가한 3달 동안 각 국가의 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의회에서 입법한 법률들이 법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수 성향을 지닌 언론과 진보 성향을 지닌 언론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볼 수 있었다.

○ 일반 채 ○ 빈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학생 시절 저에게는 꿈같은 존재였 습니다. 로스쿨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제 주위 멋진 친구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할것이 너무 많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당장의 생활이 급급했던 저에게는 꿈과 같은 봉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는 20대 초반의 제가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받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었

다는 말을 들은 후 너무나도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모든 법정 모니터링 소감문과 판결문 리서치를 보 시면 아실테지만 저에게는 이 봉사가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보다는 20대 초반에 못했던 것을 늦게라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해보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 꺾꺾 눌러쓴 한자 한자가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저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해서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감히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법은 어려웠습니다.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하며 선고를 미뤄달라 부탁하는 피고인에게 더는 미뤄줄 수 없다며 바로 선고를 내리는 판사님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무지한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아.. 조금만 미뤄주시면 안 되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판사님께서 이미 3번이나 기일을 미뤄주셨다며 더는 기일을 미뤄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라는 의견만 피력한 상태였기에 저는 판사님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3번의 기회를 판사님이 주셨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놀랐던 사실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를 남긴 사건의 피고인임에도 본인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듯이 무죄를 주장하여 저 또한 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피고인의 눈물이 마음이 아팠으나 그 후의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갔던 기억 또한 납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해주고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이다.”

이 모습들을 보고 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판결을 내리실지 가능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누구보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듯한 말을 하는 피고인을 어찌 쉽게 가려내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법정모니터링을 한번 가려면 무조건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고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다소 제약이 있었지만, 법정모니터링 과정을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의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끝으로,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 다음 봉사도 허락해주신다면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대학교 박 ○ 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법률과 사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무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나는 이번 활동에서 헌법 번역 봉사와 법원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선, 헌법 번역 봉사는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법 체계 전반을 분석하는 과정이었다. 내가 맡았던 헌법은 특정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었고, 이를 충실히 번역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와 주요 제도를 조사해야 했다. 번역 과정에서 법적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법과 비교법적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번역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토지 소유권 관련 조항을 분석하면서, 국내 부동산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법이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각국의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살아 있는 체계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법원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법부가 판례를 통해 법 해석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서 사건의 쟁점과 법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정리하고, 판결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다룬 판례를 조사하면서 법 해석의 미묘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의 책임과 한계가 쟁점이 된 사건을 분석하면서, 개인의 권리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적 판단이 사회적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사법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률적 사고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필요한 법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하는 경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배울 수 있었다. 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실감한 만큼, 앞으로도 법률 실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률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적 사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번역 과정에서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판례를 분석할 때도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면서 점차 분석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법률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고민하며, 실무적 경험을 쌓아 법률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 충남대학교 유 ○ 민

작년에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정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찾아보면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에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던 나에게는 봉사활동이 생소해 보였고 그 나오는 맞지 않는 활동이라고 느껴졌었다.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몰랐고 법학이 전공이 아닌 내가 법과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은 마음 한켠에 미뤄둔 채 다른 대외활동을 진행하면서 학기를 마무리하였고 2024년 겨울방학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봉사활동 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활동은 2024년 겨울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모니터링이었다. 법원에 가본 적은 이전에 법정에만 한 번 방청을 갔던 경험밖에 없어서 법원에 가는 것이 많이 낯설었지만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 안내 메일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은 공개하는 원칙이므로 어떤 재판이든 방청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걸 보고 용기를 내서 모니터링을 시작할 수 있었다. 9번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방청석에 혼자만 있던 적도 있었고 방청석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던 적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휴정에 법원에 헛걸음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활동이었지만 원고, 피고로 재판에 참석한 재판당사자들과 함께 많은 재판부와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들을 보면서 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지키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맡은 일은 수행하는 법조인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느낄 수 있었고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다.

그 다음 시작한 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이 활동은 봉사활동 목록 중 가장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다.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경제일간지 사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장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책, 국제 정세, 사회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양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같은 이슈에 대한 각 경제일간지의 서로 다른 논조를 비교해 볼 수 있었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마지막에 완성된 모니터링 관찰 보고서 쪽 훑어보면서 매우 뿌듯하였고 일주일 동안의 경제일간지 사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활동은 번역봉사료, 리히텐슈타인의

헌법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헌법이라는 공식 문서를 번역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고 내가 하는 번역이 법률소비자연맹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았고, 원문을 단순히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대한 문맥에 맞게 번역하려고 노력하였고 동시에 필요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법과 행정에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알 수 있었어 아주 좋았고 또한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법률 용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처음 알았을 때는 나와 맞지 않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봉사활동을 다 마친 지금은 이번 봉사활동이 로스쿨 진학 준비를 위한 활동 중 가장 의미 있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지고 목표가 확고해지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봉사활동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 국민대학교 박 ○ 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법률 분야의 봉사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언론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고, 비대면으로 활동이 가능하여 시간관리에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에게 입법 및 사법감시 활동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2024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2024 겨울학기 봉사활동으로 법정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대전 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전공 수업의 일환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방청하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방청하였다면,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방청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향해 다그치던 판사님, 온화한 목소리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증인신문을 이끌어가시던 검사님, 수많은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소송 서류들과 함께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시던 변호사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훗날 나도 법정 안에서 재판을 이끌어가는 법조인이 꼭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총 6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접하고 싶었기 때문에 행정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사사건, 조세사건, 노동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의 소송경과를 살펴보고 판결문 전문을 읽고, 해당 사건의 쟁점을 찾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작성해보고,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리얼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봉사활동이었던 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의 판결문 전문을 살펴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사법감시 봉사활동은 대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외활동입니다.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 시스템을 살펴보고 법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한번쯤 경험해보면 좋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일회성 봉사활동으로 끝내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2025 봄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하여 꾸준히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번 겨울학기 때에는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중심으로 봉사를 하였

지만, 다음 학기에는 새로운 활동들을 중심으로 더욱 폭넓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김민재

이번 겨울학기에는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서 2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한 봉사활동은 언론모니터링과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특히나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행정소송 등의 재판을 직접 방청하면서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소 뉴스를 통해서 접하던 언론들을 대상으로 10대 일간지의 사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직접 가서는, 법이 직접 적용되어 효력이 생기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흥미로운 사건들, 예컨대 TV 범죄 시사 프로그램에서나 보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재판과, 전광훈 목사의 재판과 국가보안법 사형에 대한 재판 등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뉴스보는 것을 좋아하고 학보사 활동도 했던 만큼 언론 모니터링을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분석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방학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냥 뉴스를 보는 시간을 봉사활동으로 만들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다만 언론모니터링의 경우 생각보다 보고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많았던 탓에 원래 최초에 정해진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셋째주를 대상으로 했기에 기한도 1달가량 넉넉했으나, 더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보고서를 더 깔끔하고 정돈되게 만들어서 모범 사례처럼 뽑히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 좋은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가천대학교 김선재

엄벌주의를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이전에는 엄벌주의가 만능의 수단이라 생각했다. 엄벌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회는 범죄율을 낮출 수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알팍한 기대에 그렇게 생각했었다.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자, 그중에서도 악질 범죄자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하는 등 극형을 선고해야 함을 언급하며 피고에 대한 인권을 상당히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 엄벌주의가 만능으로 작용할 거라 착각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법원 방청을 짧게나마 경험하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본적으로 재판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위하는 것이 아닌 피고로서도 바라보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양형(量刑)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므로 무작정 엄벌주의를 주장하기 어렵다.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판결에 관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도 깊게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많아 속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무고에 의한 피해를 피고가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교차검증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재판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판결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재판의 절차가 형식적이라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의 절차 중 놓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 재판 당사자가 제때 변론을 하지 못해 억울한 입장을 당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는지 생각을 해본다.

다각화된 관점에서 사건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나 또한 사건에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새길 수 있었다. 중한 판결을 위해 다른 부분을 놓쳐 다른 피해가 나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중한 판결만 바라보면 재판의 절차 등의 요건은 철저히 무시된 채로 인민재판처럼 재판 당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랑스 혁명 때 왕정을 무너뜨렸지만, 사회는 대혼란에 빠졌고, 대혼란을 막고자 공포정치를 이행하면서 극형 선고를 내리며 수많은 사람들은 단두대에서 처형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사회 혼란은 더 거세졌고, 법의 기틀은 붕괴했다. 엄벌주의가 표면적으로 좋을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등 사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엄벌주의가 사이다를 선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고, 재판 당사자 모두에 있어 악영향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100시간이라는 짧으면서도 긴 시간을 재판 모니터링을 위해 보내면서 수많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재판은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며 생각했던 것보다 정교하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재판 당사자들은 최대한 재판 진행에 적극 참여하면서 원고(민사상), 피고(민형사상) 등을 변호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단순히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재판에 직접적으로 크게 개입하지 않아도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담당 업무를 맡는 법원사무관, 법원 경위, 교정직 공무원, 사법 통역사 등도 재판에 묵묵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생각한다.

○ 부경대학교 김○진

지난 가을 학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겨울학기 봉사활동도 이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활동인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지'를 하며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누군가 묻는다면 단연코 법정모니터링 활동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왜냐하면 활동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걱정 속에서 하였고 때문이다. 처음 법정모니터링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 재판 방청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또한, 민사, 형사, 행정재판 등 재판 유형에 따른 절차가 어떠한지 평소에 의문이 있었고, 이를 알아볼 생각에 설레었다. 하지만 나의 시간과 맞지 않는 재판 날짜에 걱정을 안고 활동을 이어나갔다.

처음 활동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을 때 내 예상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당황하였다. '많은 사람들과 취재를 나온 기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란 내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이 안 계시고, 법정 호실 앞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안내 없이 고요하였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법원 휴정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년에 두 번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법원이 휴정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간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것을 알게되었기에 다음에는 휴정기도 고려하여 재판을 방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은 휴정기가 지나 다시 법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 번 방문 때와 같이 고요한 분위기였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을 찾기가 어려웠고, 겨우 들어간 법정에서도 들어가자마자 5분도 안 되어서 재판이 끝나기도 하였다. '분명 휴정기가 끝났는데 왜 재판이 많이 없는 걸까?' 의문이 생겼고, 이에 대해 재판 경위님께 여쭙보니 판사님들의 인사 이동 관계로 재판이 많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법정모니터링을 잘 해내고 싶은 내 마음과 달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속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진행 중인 재판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방청 가능한 법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법원에 방문하였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형사 사

건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정을 방문할 수 있었다. 드디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국가기관인 사법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나긋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시는 판사님과,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변호인분들, 사회 정의와 질서 유지를 위해 고민을 하시는 검사님들을 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오는 책임감에 맞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존경심과 함께 나도 훗날 방청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저 자리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학기 활동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방청 간 법정은 민사 법정이었다. 민사 법정은 형사 법정과 달리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의 출석없이 당사자의 대리인만 출석하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법정 안에는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서류를 보며 기다리시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계속해서 서류를 보며 사건에 대해 고민하시고, 또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판례를 계속해서 검색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겨울학기 봉사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순탄치 않았던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활동 중 제일 재밌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 활동이기도 하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다루는 재판을 보며 세상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경희대학교 강 ○ 은

소수와 다수를 모두 생각하는 사회

이번 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골고루 리서치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의 판례는 주로 사회에서 좀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판례가 많았습니다.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는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여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관심 있게 리서치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의견이 많아서 판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소수의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 판례는 대리 운전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례는 임기를 마친 사립 학교 교장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판이었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판례는 아동에 대한 교사의 훈육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근로에관한 소송> 판례는 대기 발령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재판이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판례는 스톱킹범죄에 있어서 통신범죄의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현대화, 다양화되면서 많은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획일화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모습이기때문에 바람직하지만 그럴수록 사회에는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수의 의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과 권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는 노력이 있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단지 공정함을 넘어서,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소수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단지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는 때때로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자들은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들의 권리는 쉽게 침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함으로써,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무시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과 갈등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자의 권리가 지켜지고, 그들이 존중받을 때, 사회는 더 넓은 이해와 협력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 권리의 보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사회에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는 더 풍부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의견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화는 결국 사회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익대학교 권 ○ 민

저는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 이번 24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하여 대학 졸업 후에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번역 봉사'와 '경제지 사설 분석'을 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우선 번역 봉사를 신청했을 때 저는 이란의 헌법을 제공 받았고 헌법의 전문부터 제2조까지의 분량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봉사 활동은 헌법의 번역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여러가지 특징들과 헌법 제정의 배경을 조사한 뒤 이를 간략히 정리한 소개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헌법을 번역하는 것과 해당 국가의 배경을 조사하는 것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을 먼저 번역하면서 해당 국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번역을 맡았던 이란은 헌법 제정의 배경에 이란의 역사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배경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란 헌법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입헌 군주제가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 이후에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은 이란 국민들의 의지가 담긴 운동으로 투쟁의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투쟁의 밑바탕이 되는 정신이 헌법 제정 과정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역사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란 헌법 전문에 적힌 헌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의 목표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헌법의 역할이라 언급하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헌법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의 헌법이든 모든 구성원의 평등과 성장을 가치 있게 보고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정말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용하고 있을까요? 헌법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활동을 통해 저는 몇가지 본질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번역 봉사의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또한 이란이 가진 역사처럼 헌법 제정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를 다시 공부하고 헌법의 목표를 상기하며 국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나는 앞으로 어떤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번역 봉사를 마치고 시작한 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입니다. 이전에 언론 모니터링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10대일간지 사설 분석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경제지 사설 분석으로 대상 언론을 바꿔서 분석해보았습니다. 우선 경제 분야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이라 사설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 경제지에서 공통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읽고, 생소한 주제는 그 배경지식을 찾아보면서 빈틈을 채워나가니 오히려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경제지 사설 분석을 진행하면서 저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밀어붙일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탄핵 정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었기 때

문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경제 분야에 눈을 뜰 수 있었고, 앞으로도 관심 갖고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 경희대학교 김 ○ 룰

법학전문 대학원으로서의 진로에 관심이 생겨 법정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호기심으로 2022학년도 겨울학기에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진로에 확신이 들어 준비를 하던 중 아직 제대로 법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함을 느껴 방청을 하는김에 의미 있는 활동도 겸하여 하고 싶어서 2024학년도 겨울학기에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신청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겨울 방청 경험과 비교해서 최근 방청을 하며 느낀점은 우선 재판이 더욱 공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 방청을 하기도 했고 15건 정도의 적은 재판부만을 경험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한정된 경우에서 받은 느낌일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엔 확실히 판사님들도 가끔 재판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도 다소 경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를 할 때는 물론 판사나 검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판사들이 재판시간에 맞춰 오는 경우가 다수였고 재판부 분위기가 증인이나 피고인을 대할 때 부드러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판사에 있어서는 피고나 증인에게 말을 하기 전에 일반 방청객을 한번쯤 바라보고 역량을 더 부드럽게하거나 설명을 더 풀어서 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방청을 온 사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2022년 겨울에 방청할 때만해도 방청을 갔을 경우 어떻게 왔는지, 변호사인지, 피고의 가족인지 등등 일반 방청객을 염두해두지 않고 판사나 경위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를 할 때는 그 후로 일반 방청의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반 방청객을 염두해 두고 어떻게 왔는지 따로 질문하지 않고 일반 방청객이란 것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방청객에 대하여 그 당시에 비해 확실히 익숙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윤석열정부 계엄으로 인한 형사, 탄핵 재판과 서부지검 테러에 대한 특수성이겠지만 다른 시기보다 보안이 강화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존에는 소지품검사만 실시했지만 최근 들어 소지품검사에 있어서 스케너에 들어가는 소지품도 더 확실히 확인하고 경위가 직접 주머니쪽을 만져본다거나 전파탐지기 등으로 직접 검사도 실시하는 등 법원 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수히 많은 불특정인 사람들이 오가는 법원 특성상, 기존의 보안이 어떻게 보면 메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싶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오히려 경각심을 갖는 것 같아 긍정적인 현상이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보안의 강화를 목적으로 그런 것인지 진일표에 재판부 담당 판사분들의 이름이 빠져서 어떤 판사가 재판을 이끌어 가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서 그 점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진일표에 각 사건들의 사건명이 적혀져 있지 않아 원고측 변호인이 작성한 공소사실을 재판 중에 확인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 아쉬운점이 있었습니다. 재판 특성상 서로 간의 재판 공방이 말로 이루어지기 보단 서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질의와 대화만으로 사건과 흐름을 판단해야하는데 법적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그것이 쉽지 않고 관심이 가는 사건을 미리 취사선택하여 볼 수 없으므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방청의 용의성을 위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진일표에 사건명을 작성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스쿨진학에 대한 관심 등으로 법원 방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서 그런지 법원 관계자들에게 일반 방청객에 대한 인식이 익숙해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의 취지가 재판부를 감시함으로써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게끔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맞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으며 재판부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법정 모니터링 봉사를 하는 것에 있어 자부심도 더 생기면서 능동적으로 열심

히 활동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지속해서 법정 모니터링을 하여 사법부가 더욱 공정해지는데 동참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나중에 제가 법조인이 된다면 지금의 마음과 생각을 잊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서

이번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나아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일 것이다. 이번학기 법정모니터링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수차례 오고 가면서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를 이겨내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첫 방문 당시 인사이드 시기와 겹치면서 거의 법정이 열리지 않았고, 안내문도 제대로 찾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찾기 위해 동관과 서관을 오가며 계속 뛰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당시 비가 오는 날씨가 더더욱 오고가기 힘든 상황임에도 별관까지 모든 층을 다 돌면서 법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생각보다 방청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처음 방문하는 입장에서는 재판장 찾기까지 꽤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고생 끝에 법정 내부에 입장했을 때,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방청한다는 사실에 긴장도 많이 했지만, 판사 입장부터 증인 심문, 검사 발언, 변호사 발언, 피고 심문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재판의 흐름도 여러 차례 방청하며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다. 또 각각의 형사재판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근거들의 특징들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법정 모니터링을 마치면서, 변호사로서의 나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재판에서 변호사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숨겨진 사실관계나 법리를 제시하는 스로를 원하게 되었다. 이에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도 더 키울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2회 수행하면서 나의 강점과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었다. 첫 번째 판결문은 공직자 관련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입자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고, 두 번째 판결문은 국정원 소속 직원들의 댓글 개입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이다. 두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언론보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달랐다. 첫 번째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 일부승 판결인 원심이 유지되었고, 두 번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표현이 명예훼손인지보다 더 전반적인 경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게 되니, 기존에 막연하게 언론보도와 관련된 법률을 수행하고 싶었던 것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변호하게 될지를 상상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점에서 내 진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헌법 번역봉사를 하면서는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기존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타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을 비교해보거나, 타국 헌법의 역사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 리비아, 이라크 라는 낯선 국가의 헌법을 살펴보면서 한국 헌법과의 차이점,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 헌법 용어들을 더 많이 접해보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도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법률소비자연맹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든 활동이 나에게 의미있었고, 앞으로의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번 활동들을 더 의미 있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

○ 연세대학교 김 ○ 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는 다르게, 직접 법원을 방문해볼 수 있었고, 요약된 판결 내용이 아닌 판결 전문을 다수 읽어볼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나는 총 두 개의 법원에 다녀왔는데, 맨 처음 방문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분위기가 매우 조용했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을 검사하여 다소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반면에 수원지방법원은 건물 안에 법정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함께 있어 사람들이 많았고,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법정 안은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법정 바깥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수원지방법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판사님들의 인사이동 시기와 겹쳐 재판을 하나도 볼 수 없었다. 법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그러한 안내문이 없어 이 사실을 모른 채 한참을 기다렸지만 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1층 입구에 계시는 직원분께 여쭙보니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재판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인터넷으로 판사의 인사이동에 대해 찾아보니, 피고인들에게는 판사의 인사이동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았다. 인사이동 정보를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엄격히 재판하는 판사가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들에게는 어떤 판사가 자신의 재판을 맡는지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에,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직접 볼 수 있어서 내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판결문 전체를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평소 학교 수업을 통해서 판결문 전체를 보기보다는 요약된 내용을 보거나 일부만 보았는데, 이 활동을 통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한 3심 판결문 전부를 꼼꼼히 읽고 분석까지 할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읽고 분석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중요한 판례의 최종심 판결문만 일기에,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읽을 기회는 거의 없다. 게다가 1심 또는 2심 판결문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서, 1심과 2심 판결문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1심 판결문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쓰여지고 법리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대체로 관련된 법조문을 적용하고 이전 판례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2심 판결문은 1심의 법률 및 판례 적용을 다시 검토하는 내용과 추가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1심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2심 판결문을 통해 쟁점이 된 사안을 이해하고, 3심 판결문을 통해 법률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판결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후 새학기에 수강하게 된 다양한 법 교양 수업에서 과제를 하는 데에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두 활동을 통한 경험에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 이번 겨울학기가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봉사활동이었는데, 앞으로 있을 몇 번의 방학동안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다. 비록 이번 겨울학기에는 시국이 어지러워 학교 근처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차츰 나라가 안정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하려고 한다. 내 봉사활동이 나에게 많은 배움을 준 만큼, 법률소비자연맹에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 아주대학교 김 ○ 민

로스쿨 관련 대외활동으로 무엇이 좋을까 찾아보다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등 여타 봉사활동들보다 법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의 경우, 직접 법원의 재판부를 찾아다니며 사법시스템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 접했던 사법시스템은 부정적인 모습이 대부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증인들의 모습, 본인들의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모습,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판사의 모습,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잡무를 맡아하는 법정 경위의 모습 등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서로를 존중하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는 결론들은 공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시스템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느꼈던 감상의 경우 제가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꼈던 감상들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법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법시스템 작동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구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형벌이 응보적인 역할을 취해야 하는지, 예방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이는 형량 자체가 지은 죄에 비해 작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형기준에 대한 조금 더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전망도 해보았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는 주로 사법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되는지 감시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도 시도하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김 ○ 윤

지난 3개월간 법률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 번역,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의 활동을 통해 법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용어가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문장을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직접 재판을 참관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관찰할 수 있었고, 법정에서 오가는 논리적인 변론과 판결 과정을 통해 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원칙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사건의 배경과 법적 판단의 근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단순히 법조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며, 법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김 ○ 영

이번 2024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법률 봉사활동은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값진 기회였다. 봉사활동은 크게 헌법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졌으며, 각각이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시각과 배움을 제공했다.

먼저, 헌법 번역 봉사(이라크 헌법, 코소보 헌법)를 수행

하면서, 국가별 헌법 체계가 그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단순히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와 각국의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한 의미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특히, 특정 조항이 국제법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해야 했고, 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 하나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판결문 리서치(2023.7.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2021.3.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과정에서는 행정과 형사 법률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다.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청구 사건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이 충돌하는 문제를,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격 인물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다루었다. 판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 논리가 단순한 조항 적용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헌법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을 체감했다. 법률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석되고 적용되는 유동적인 개념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민사 3건, 형사 3건)**이었다. 실무에서의 법적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법정에서 변호사와 판사, 검사, 원·피고 측이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민사 재판에서는 특히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의 기소 논리와 변호인의 방어 논리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실질적인 소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학기에 소액 사건과 행정심판을 직접 방청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번 법률봉사활동을 통해 법은 단순한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사회적 쟁점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을 깨달았다. 법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판례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법률 해석의 중요성과 공정한 재판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 앞으로도 법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실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더 깊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싶다.

○ 고려대학교 김 ○ 호

이번 학기 법정 모니터링, 언론 모니터링, 번역 봉사 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회적, 법적, 언론적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언론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국제적 소통에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활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법과 언론, 그리고 번역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직접 관찰하면서, 사법 절차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논리와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모니터링하였으며, 형사 재판과 행정 소송, 민사 소송이 각각 어떠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행정기관의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법적 원칙이 충돌하는 과정을 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였습니다.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각각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률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법이 단순한 조항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신문 사설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사의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주요 경제지를 중심으로 특정 이슈가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비교 분석하며, 언론이 단순한 정보 제공 기

관이나 특정한 관점을 형성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를 다룬 기사에서는 일부 언론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언론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이 경제 및 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사실도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 사설을 분석하면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흐름까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 정책, 반도체 산업 경쟁력, 최저임금 개편 등의 이슈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법 번역 봉사는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법률 문서는 일반적인 문서와 달리 특정한 법적 개념과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념이 한국과 이라크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며 번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헌법 제2조에서 "Islam is the official religion of the State and is a foundation source of legislation."이라는 문구를 단순히 "이슬람은 국가의 공식 종교이며, 입법의 근본적인 원천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장이 이라크 법체계에서 가지는 법적 의미와 민주주의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헌법 전문(Preamble)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정치·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번 번역 봉사를 통해 단순한 언어적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법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였으며, 법률 문서 번역이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 언론, 번역이라는 세 가지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절차와 논리가 중요하고, 언론에서는 이러한 법적·경제적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는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번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 형성과 미디어의 역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 봉사를 통해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문화적, 법적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언론, 그리고 국제적 소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법률과 경제 정책이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및 경제 관련 번역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보다 전문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나가자 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배움과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 일반 김 ○ 은

사법부의 활동은 대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활동에서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그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의 일면만을 보고 법정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재판 과정을 방청하면서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법정에서 내려진 결론이 어떻게 서면으로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논리가 적용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이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전에 들었지만, 실제로 그 진행방식과 절차를 체험하며

그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은 주어진 재판의 일부만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단순히 판사의 결론을 정리한 문서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상세한 논리와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사법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활동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법적 절차에 대한 보다 넓고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었기에, 그 경험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점은, 법과 그 집행 과정이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재판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민사재판과 행정재판 역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재판에서는 국가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가들인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직업군이 재판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적용하고 판결을 내리며, 검사는 법률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고, 변호사는 재판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법률가들의 역할을 비교하고 이해함으로써, 재판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의 경험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 법적 시스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서면으로 정리되는지에 대해 배우면서, 법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법적 문제를 대할 때 보다 성숙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봉사활동은 단순히 법을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판결의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법적 직업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명지대학교 김 ○ 정

이번 겨울방학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 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는 이번 겨울방학 자원봉사 활동으로 번역 봉사와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다. 각 활동 모두 내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많은 공부가 된 활동이었지만, 특히 겨울 방학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은 더욱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다. 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법정 재판을 그냥 가서 방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더불어 진로를 준비하면서 작아졌던 마음가짐을 다잡는 데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먼저 나는 번역 봉사 활동으로 일본의 남녀참가사회 기본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나라였기에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일본의 남녀참가사회 기본법은 새로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남녀평등을 위한 기본법을 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내용들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다. 법을 번역하면서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게 마련된 법안이라는 생각에 시대 상황에 맞춰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에 발맞춰 법의 태도도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 저번 학기와 다르게 가사사건을 진행해보았다.

평소 가사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흥미를 가지고 재

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공소외인의 입장이다. 공소외인은 가사 이혼사건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그 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권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소외인의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사사건을 두차례 살펴보면서 각각의 이혼 사유와 내용이 달랐으나, 어른들의 문제 사이에 있는 공소외인의 입장은 다르지 않았고 이에 가사사건을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문제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가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한 쪽 입장에 편견을 가지고 판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례를 다시 한 번 봄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통합하여 바라보는 데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법정 모니터링은 민사 4회 형사 3회, 행정 3회를 진행했다. 민사와 행정의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웠으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들과 재판 속에서 들려지는 말과 내용들이 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이었기에 신기하기도, 재밌기도 하여 흥미롭게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다. 다만, 법정 내 경위의 제재로 법정 모니터링을 쉽게 진행할 수 없었던 점에서 아쉬움이 남고, 법정마다, 판사마다, 마이크 사용 유무나 원고 또는 피고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던 점에서 새롭기도 하였다. 이 활동은 내가 꿈을 향해 잠시 놓고 있던 열정을 다시 찾게 해준 활동이었고, 법학을 학생의 입장에서 많은 공부가 되었던 활동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법정 모니터링은 꼭 다시해보고 싶고, 주변인이게도 방청을 한 번씩 권유할 만큼 좋은 활동이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나 ○ 정

이번 봉사 활동은 저에게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영어로 된 이란 이슬람공화국 헌법 번역 작업의 경우 이것을 맡은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약 25시간의 시간을 소요하여 완료한 이 작업은 처음에는 많은 분량 앞에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번역을 진행하며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헌법의 깊은 역사적, 법적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저는 다양한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세심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작업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헌법을 읽게 되고, 해당 나라의 문화와 법적 체계를 이해하고 반영하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번역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제가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아 법원에 가서 허탕을 친 경우도 몇 번 있었기에 꽤나 자주 법원을 방문하며 총 9회의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 판단과 절차를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법의 공정성과 절차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니터 관찰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법정에서의 발언, 증거 제출, 판사의 판결 등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 사건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작성하며 사건의 배경과 관련된 법적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마다 다른 법적 쟁점과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보며, 법의 복잡성과 정교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을 통해 저는 법의 실질적인 적용 과정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판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각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법과 정의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의 세심한 기록과 분

석의 중요성도 함께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헌법 번역 작업을 통해 언어의 중요성과 한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헌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배웠으며,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법의 공정함과 절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 부산대학교 남 ○ 현

이번 겨울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법조인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다.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법의 적용 방식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고,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 근거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사건별로 판사, 검사, 변호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같은 법 조항이라도 해석과 적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공판을 직접 방청하며, 법적 논리와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판결문리서치 과정에서는 법의 적용 방식과 판결의 논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에 분석한 판결문은 총 4건으로, 각각 폭행(형법 제21조 제1항 위반), 성매매 알선,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학대 살해 및 방임 사건이었다. 그중에서도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과 관련된 사건을 분석할 때, 형법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정당방위의 요건과 한계를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직접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면서, 교과서 속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면서, 법적 판단이 단순히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스토킹과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적 기준의 강화가 두드러졌고,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경각심을 주려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기존 판례와 비교하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법조인의 역할이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조인의 길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얻었다. 특히,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법률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례 연구와 법정 방청을 이어가고 싶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법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문 ○ 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이라 많이 떨렸고,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봉사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에서는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데, 이 두 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히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판 하나하나가 개별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판사는 더욱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를 때, 3심에서 이를 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를 통해 직접 재판을 참관하면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 공방과 판사의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 속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법조인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참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자로서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민사, 소액, 행정,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봉사자로서 판사,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의 태도와 발언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의 가장 근원적인 역할인 '질서 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실제 사기나 성범죄 등의 사건을 보며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몇몇 피고와 저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보며 법이 단순히 제재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과 예방의 역할도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에서는 보험 사고를 약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다루었는데, 1심과 2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면,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가 약용될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법이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법적 기준까지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관의 책임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리서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소송을 조사하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유출 여부와 피고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논리가 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이 감정적인 정의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률의 실질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에서는 공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범치국가로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가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공연권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실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이 재생되는 것이 법적으로 저작권 및 공연권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과 달리 공연권 제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의외였지만, 법원의 판단이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더 엄격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법이 실제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를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는 핵심적인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욱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특히 법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며 법적 사고력을 더욱 키우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방식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 홍익대학교 문 ○ 영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의 대학시절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2024년 겨울학기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으로 법정 모니터링,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처음해보는 형식의 봉사활동이라 신기한 부분들

이 많았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같은 경우 직접 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실제로 보면서 하는 봉사활동으로, 처음 방문해 본 법원과 재판장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러 문항을 기록하면서 점점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법원의 구성원들의 노력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뜻 깊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은 이슈와 관련된 언론사의 기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봉사활동으로, 하나의 이슈를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체계적인 목차에 맞춰 기사를 스크랩하고 관련된 내용을 적다보니 하나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2024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직접 발로 뛰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활동하고 싶습니다.

○ 단국대학교 민 ○ 영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험을 했다. 법학과 학생이기에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고 가까이 지내긴 했지만,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직접 재판도 방청할 수 있어서 법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재판이 철저히 서류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과 변론기일이라 하더라도 30분 내로 빨리 끝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선고기일에 가면 재판장이 랩 하듯이 판결문을 읽어줘서 법정에서 앉아있는 당사자들이 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변호사와 검사의 논리적인 공방이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인데 증거의 인정 여부를 두고 팽팽한 다툼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로웠다.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나 증인의 진술 방식까지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몸소 느끼게 됐는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나가면서 불만과 함께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사정변경이 없다는 등의 법적 이유가 진정한 이유였겠지만,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접 재판을 방청하고 기록을 남기다 보니 뉴스나 기사로 접하는 법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해외 헌법 번역을 하면서는 각 나라의 법 체계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을 실감했다.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법적·역사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했다. 같은 개념이라도 나라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법의 표현 방식도 차이가 있었다.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관과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1심, 2심,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판례를 찾아보면서 법리 해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공부할 수 있었다.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사까지 찾아보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는 과정도 의미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고 싶다.

○ 덕성여자대학교 박 ○ 은

전공 관련 활동을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발견하여, 이번에 처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잘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봉사 신청 전부터 '내가 이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많이 했을지라도, 직접 겪어보니 오히려 뿌듯하고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학기 필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근처 법원을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여러 내용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 법원에 들를 일이 없다 보니, 자유롭게 입장해도 되는지 방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한지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께서 보내주신 매뉴얼을 정독한 후 첫 모니터링을 다녀오니 상상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법원 입장 시, 가벼운 짐 검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청 또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앉기만 하면 자유로웠습니다.

이번 법정모니터링은 민사, 형사, 기타 행정이나 소액 법정을 필수적으로 각각 3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인정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주 지역 근처 법원에서는 행정/소액 재판장이 없거나 잘 진행하지 않아 타 지역 법원까지 방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판사마다 재판 진행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재판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판사도 있는가 하면, 조금 강압적이거나 호통을 치는 판사도 있었습니다.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한 점은 변호사와 다소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판사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본다, 쉬쉬엄 해라 등 방청객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필요해 보이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재판을 방청하면서는 법정모니터링의 의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 재판은 생각보다 한쪽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거나, 판사가 본인의 의견만을 고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점도 있었지만, 법정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경험이 너무나도 뜻깊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며 좋은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이 끝난 후 진행한 활동은 '언론모니터링'입니다. 언론모니터링은 이슈 분석, 10대 일간지 분석, 경제신문 사설 분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경제신문 사설을 택하여 활동했습니다. 총 아홉 곳의 경제신문사에서 게재한 사설 기사를 수집하여 스크랩북을 만들고, 기사들을 분석해 서로 비교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161개의 기사를 하나하나 읽고, 밑줄치고, 주요 이슈 별로 분석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지만, 스크랩북과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이 상당했습니다.

사설 수집 단계에서는 언론사 별 사설 기재 빈도, 횟수, 시간대 등을 알 수 있었는데, 꽤 일정한 속도로 사설을 작성하는 언론사도 있고 무작위하게 사설을 업로드하는 언론사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객관성을 조금 잃은 듯한 몇몇 사설도 존재했습니다. 외에도 언론사마다 이슈 별로 취하고자 하는 입장이 확고함을 알 수 있었고, 서로 비슷한 의견은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기사는 언론사가 다름에도 사용하는 표현이 완전히 흡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언론사에서 'OO 때문에 우리 경제의 전망은 미지수입니다.'라는 문장을 사용했는데, B언론사도 그 문장을 거의 똑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사를 읽을 때에는 이러한 유사성을 경계하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기사 내용을 해석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하여 하나의 이슈에 관해 한 가지 기사만 읽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도 함께 읽으며 비교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실관계 중 일부만을 소개하는 등 언론사의 성향에 맞춰 작성되는 기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론모니터링 활동 경험은 '비교 분석'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두 가지 활동을 하며 느낀 사실은 '힘든 만큼 값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일수록 깨닫는 점, 얻어가는 점이 많았습니다. 체력 문제로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다음 봉사활동 때에는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성실한 활동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박 ○ 연

2023년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률 봉사 활동

을 하며, 단순히 학문으로 접했던 것 이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법 활동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보고 그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겨울학기에도 그간 쌓인 법률 관련 활동의 경험과, 새로이 배운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봉사를 하며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에 보탬이 되고, 저번 학기의 봉사 활동에서 얻었던 것 이상의 사법 활동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번역 봉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수행한 번역 봉사는 총 네 건으로, 아일랜드와 이라크 헌법을 한 차례, 쿠웨이트 헌법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번역하였습니다.

지난번 진행한 번역 봉사에서는 헌법이 아닌 영국의 행위규범 문서를 번역하였기 때문에, 따로 번역 대상국의 사회배경 등의 부가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 진행한 번역 봉사에서는 오직 헌법 문서만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아일랜드와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의 기본적인 국가 정보와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영어 문학 관련 강의 도중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하여 짧게 배운 적이 있어 크게 새로 얻은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경우에는 이름은 접해본 바 있으나 해당 국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고, 특히 이라크의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이나 내전, ISIS의 테러 같은 사건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컸습니다.

쿠웨이트는 정치 체제가 전제군주정이기 때문에, 헌법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다르게 계속해서 군주와 군주의 권한이 언급되는 등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전제군주정이기 하지만 쿠웨이트는 군주가 가진 정치적 권한이 꽤 큰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체제의 차이점에서 보이는 쿠웨이트와 우리나라 간의 헌법 내용의 차이가 번역하면서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어 온 나라인 만큼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 헌법에서도 많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열한 지역정부를 중앙정부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분열된 민족 사회에서 모든 민족의 권리를 공평히 보장하려는 노력, 그리고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정부 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헌법 조문에서 엿보였습니다. 특히 탈바트당위원회가 정부의 산하 조직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으며, 바트당 출신 인사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불이익이 명시된 조문에서는 패망한 후세인 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이라크 사회의 노력이 돋보여 번역 도중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총 두 건 진행하였는데, 지난번 봉사 활동 때에는 제 본전공인 영어교육과 연관이 있다 생각한 교권보호위원회조직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판례에 대하여 리서치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학기 학교에서 수강한 강의를 통해 쌓은 법률 지식과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리서치를 진행해 보고 싶어, 첫 번째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가 된 공무집행방해 판례와 손해배상에 관련된 판례를 선정하여 리서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지난 학기 학교에서 형법 강의를 수행하면서 가장 모호하게 다가왔던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해당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던 도중, 이 개념이 근 몇 년동안 판례에 자주 언급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해당 개념이 문제가 된 판례가 존재하였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어, 혹시 이 판례가 형법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판례일지 궁금해 하며 대법원 2023도16951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개념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혹시 판례 이해에도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였는데, 단발적인 행위가 형법상으로 문제가 된 판례였는지라 오히려 오랜 기간 서로 분쟁하며 행정소송까지 다다랐던 지난 리서치 판례보다 훨씬 사실관계 이해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3심이 진행될 때,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결하였으나 그 사유가 명백하게 달랐으며, 3심에서는 앞서 판결을 뒤집어 피고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고인의 착오에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져, 3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앞선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정점 중 하나였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법률 개념인 만큼 해당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리서치 활동을 수행한 판례는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판례였던 대법원 2020다245552 판례였습니다.

지난 학기, 회사법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민법과 상법에 대한 몇몇 조항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회사법 개념을 실제 판결문을 읽으며 적용해보고 싶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의 여부와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 해당 판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법 판례인 만큼 여타 판례에 비하여 판결문의 길이가 확연히 길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다루는 쟁점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리서치를 위해 판결문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회사법 교재를 통해서만 배웠던 조항을 실제 판례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1인주주를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법령 및 정관에 정해져 있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어도 결의는 유효하다는 내용을 실제 사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원고 입장에서는 역울할 수 있겠으나, 총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심각했던 피고 회사의 사정이 업무 집행에 장애가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참작되어 피고가 감행한 원고의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판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23년도 겨울학기의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사건 자체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사건이었지만, 판결문에 드러난 쟁점과 판사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리서치 활동이 어려운 활동으로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번 학기 수행한 두 건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제가 지난 학기 학교에서 수강한 법률 과목인 형법과 회사법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 판례로 선정하여 리서치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난번의 리서치 활동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판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배운 법률 개념을 적용해 보며 실제 재판 과정을 따라가고, 판사가 판결까지 이른 논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법률 봉사 활동 중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가톨릭대학교 박 ○ 민

로스쿨 진학을 위하여 전공인 법과 관련된 대외 활동을 찾던 중 동기로부터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30시간을 정해진 기간 안에 채워야 해서 처음에는 하기가 귀찮기도 하였다. 하지만 막상 활동을 하니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얻고 느끼는 바도 많았다. 내가 했던 활동은 외국의 헌법을 번역하는 것과 재판 참관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이었다.

우선 다양한 대륙의 다양한 헌법을 번역하면서 그 나라만의 특색 있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항목들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착각이었다. 그 나라의 정치 형태와 문화에 따라 헌법 규정이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국왕인 '아미르'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항목들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 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묻어나는 조항들도 볼 수 있었다. 과거 영국의 보호령이었던 레소토는 영국의 의회 형태인 상원, 하원제도를 의회에 도입하고 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의회 의원들에게 부속의 추장들을 일정 포함하는 모습도 보인다. 따라서, 완전히 과거에 지배했던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 나라만의 고유한 전통과 혼합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헌법 규정이 그 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특징에 따라 열

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전부터 재판관을 참관해 보고 싶었는데 마침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본 9회를 넘어 13회를 하게 되었다. 재판관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재판이 있고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로부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재판을 보면서 경기도 부천이라는 작은 지역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이들에 대하여 약간의 분노도 느꼈지만, 그들도 형사상 주장할 권리가 있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상기하면서 평정심을 가지고 재판을 보게 되었다. 민사재판 중 소액사건을 보았는데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법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임금 지급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는데 본인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느껴져 공감이 되었다. 행정재판을 보면서는 정말 전문적인 재판들이 많았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뜨거운 쟁점이었던 의대 총원 확대와 관한 재판도 있었고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되어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보았다. 변호사들이 서로 논리적인 말로 주장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전문성이 보였다. 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법조인이라는 꿈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법에 대하여 여러 지식도 얻었고 느끼는 바도 많았다. 항상 대학 강의 때 보던 판례들이 여기서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실감이 났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이 활동들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해주고 꿈을 다시 꾸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하다.

○ 한국의국어대학교 배 ○ 경

법률 관련 활동에 대해 찾아보다가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2024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했지만, 법조인의 꿈을 꾸면서도 법률에 무지했던 제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막연한 기대로 신청했었습니다.

필수활동인 법정 모니터링을 포함해 판결문 리서치 활동, 번역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나마 익숙한 번역 봉사를 제외하고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는 처음 접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법원은 단 한 번도 방문해본 적이 없었고,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법정에 직접 들어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긴장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재판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의 재판이라 방청권을 받아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사자와 변호인들, 기자들로 가득한 법정에 들어서니 특히나 더 긴장했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인물들이 변호인들에 둘러싸여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8개의 재판도 한 사건 한 사건 모두 기억날 정도로 흥미롭게 모니터링했습니다. 여러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제가 어떤 종류의 사건에 더 흥미를 느끼는지, 향후 법조인으로서 어떤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은지 직접 느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선명하게 법조인의 꿈을 그려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하는지를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 또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고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긴 분량의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읽어보며 어떤 부분이 쟁점이며, 각 법원이 어떤 이유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살펴보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았습니

다. 장들에 어려움을 느껴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용어들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판결문을 읽는 것이 재밌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법원을 오가고, 긴 판결문을 읽고, 우리나라와 다른 행정체계의 다른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않았지만, 각각의 활동이 분명 제게 의미 있는 경험과 재산으로 남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제가 살아가 사회는 여전히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과 갈등이 존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바로잡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고 하려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바라보고,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봉사도 신청해서 이런 생각과 경험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백 ○ 선

2025-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자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총 9차례의 재판 방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 3곳, 민사재판부 3곳, 소액재판부 2곳, 행정재판부 1곳에서 열린 다양한 재판을 직접 관찰하며 법이 실현되는 현장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방청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법이 단순히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증인 신문 과정에서 판사가 어떻게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지, 검사는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개인 간의 권리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로 손해배상 사건을 방청하였는데 다양한 사건을 통해 사법부가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액재판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이 많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에 대한 재판인 만큼 판사가 쌍방간의 합의를 제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정재판에서는 국가와 국민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보며,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가 법을 통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역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법률적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주권 시민으로서 법의 작동 방식을 배우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재판이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학기에도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법적 사건을 분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사건 등 폭넓은 판례를 연구하면서 법적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의 적용을 넘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 해석이 판결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법적 분쟁 해결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연구하고, 형벌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판례를 통해 동일한 범죄 행위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법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법관이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를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사건 판결문 분석에서는 국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와 그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시민의

권리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살펴봄에 행정법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행정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와 판결이 행정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법과 정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판례 분석이 단순히 사건의 결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논리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의 논리를 깊이 분석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논리적 사고와 법적 해석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재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법률 지식의 습득에서 더 나아가 법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법조인이 지녀야 할 책임과 윤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지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실무 경험을 쌓아 법과 정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서 ○ 리

법학을 전공하며 쌓아온 지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저에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학기 동안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배운 것을 직접 적용해 보고,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은 이번 봉사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법정을 방문해 본 경험이 전무했던 저는 처음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막연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로써 재판 방청이 보장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모니터링을 거듭한 끝에, 낯설었던 법정이 점차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사건 진행 방식과 법적 절차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민사(4곳), 형사(3곳), 행정(3곳)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하며 실무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실의 재판은 미디어 속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막연히 재판이 최소 1시간 이상 길게 진행되며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민사 사건의 경우 하나의 재판이 5분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판사는 자리를 유지한 채 사건별 당사자와 변호인이 계속 교체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얼마나 폭넓고 다양할 수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제가 배운 법적 지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요약된 판례만 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하급심과 상급심 판결문을 직접 읽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 및 판결문을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익히고, 사건의 핵심 논점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며 각국의 헌법 체계를 비교하고 공통된 헌법 정신을 발견하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현실이 헌법 조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며 보람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더욱 깊이 있는 법률 실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 부경대학교 서 ○ 준

2024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이어 겨울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인데 두 학기에 걸쳐 이 세 가지 봉사활동을 해 볼 수 있어서 뜻깊다.

이번 학기에 신청했던 건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이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은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이어서 신청하게 된 것이지만, 선택사항이었어도 다시 선택했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공개재판주의가 적용되고 있어서 원칙상 열려 있는 법정이라면 어디든 들어가 방청할 수 있다지만, 여가 시간에 법원에 가 방청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법에 따른 재판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엄정하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학 시절 민사소송법 강의의 교수님께서서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판 당사자로서 법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말이 출석이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직전 학기에 세 번쯤 법정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모든 법정이 엄숙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판결을 이어나가는 건 아니고, 해당 재판을 관장하는 판사의 나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부담 없이 방청을 하러 갈 수 있었다.

방청을 거듭하며 제일 먼저 느꼈던 점은 ‘이제 절차법상/실체법상 용어가 잘 들린다. 그리고 구분도 된다.’였다. 또한 결심, 속행, 추정처럼 민사사건이면 민사사건대로, 형사사건이면 형사사건대로 특히나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었고 달리 지켜지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모니터링 관찰사항으로 배부받은 파일이 재판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지표가 되어주어서 좋았다. 모니터링 관찰사항이 있었기에 무엇이 재판의 주요 사항인지 알 수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태도나 변호사의 성실성 등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재판이 절차에 맞게 수행되는지(가령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 전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고 위증죄를 고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법정 모니터링 담당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행정사건과 소액사건을 다루는 법정이 잘 열리지 않아 방청이 불가했다는 점이다. 기회가 된다면 행정재판과 소액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차차 알아가고 싶다.

그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사건의 판결에 사용된 법리와 판결문의 구조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봉사활동이다. 우리나라는 판례법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이전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향이 크고 판시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를 사용해야 하는 등 대법원 판례의 위상이 높다. 때문에 학부 시절에도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학습했고 1심이나 2심의 판결문 전문을 볼 일은 드물었다. 그래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법학 지식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했고, 이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 기쁘다.

해당 봉사활동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소감은 “판결문 자체는 잘 읽히고 이해에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지식을 머릿속에서 꺼내 논리정연하게 구체화하기는 어렵겠다.”였다. 만약 전공을 살리게 된다면 나도 이렇게 버리를 전제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 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정리한다는 해당 봉사활동의 취지를 상기하면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거듭 고민했다. 그 때문에 나의 언어로 판결문을 치환하려 노력했고 판결문 분석 과정에서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었다.

○ 경북대학교 송 ○ 지

1. 법정 모니터링

법원 방청은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던 재판 장면과는 다르게, 현실의 재판은 좀 더 사무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에 법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기회로 재판을 직접 방청해보면서 법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활동 중 형사재판들을 방청하다 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아서, 이에 관심이 생겨 보이스피싱 관련 판례들을 골라 리서치해보았습니다.

(1) 대법원 2021도 17151(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첫 번째로 고른 판결문이었는데, 판결문 내용 자체가 긴 데다가 첫 번째 작업이라 그랬는지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의 판결 부분 중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적힌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법리적으로 적절하면서도 정당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양형기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 대법원 2024다216187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리서치 활동을 진행한 판결문들 중, 가장 흥미로운 판결문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이 공개되어있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지만, 제공받은 매뉴얼에 판결문 제공 신청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고에게 피해금액 반환 혹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은 물론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이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 대법원 2020도 16468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당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대출을 하기 위해 카드나 통장을 넘기는 것도 대가로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경우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낼 방편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면 대출과 체크카드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유사한 사건같이 보여도 미묘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3. 번역 봉사

번역 봉사 가이드에 적혀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법적 배경과 용어들을 먼저 조사하니 번역 작업이 꽤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번역 봉사를 할 때 단순히 언어만 변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읽어봤던 법률 문서들의 문체를 떠올리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느낌을 살려보려고 했으며, 법률 문서로서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단어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였습니다. 타국의 헌법 내용을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헌법의 내용도 떠올려보며, 법과 정의가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 한양대학교 신 ○ 림

2024년도 겨울학기에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임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조인이라는 진로를 희망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람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번역 봉사활동>

학창시절의 해외 이민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영어 사용에 있어서 수월함이 있었기에 번역 활동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번역 대상 자료는 쿠웨이트의 헌법 전문 중 15페이지 가량이었다. 헌법 조문만 읽었을 때에는 생소한 고유명사들이 많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쿠웨이트라는 나라의 국정상황, 역사, 문화, 종교 등의 여러 배경 지식을 습득한 것이 조문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슬람 국가임에도

쿠웨이트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신과 공화주의 정신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다소 유사함을 느꼈다. 이는 쿠웨이트가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민주화가 발전하였고 아미르 국왕의 통치 하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적 자유를 지켜주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

다른 활동들에 비해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 다소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아마도 생소한 분야의 용어들과 판결문에서의 지시대상자들이 불투명했다는 점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학부 전공 수업과 학회 활동들을 바탕으로 평소 형사법이나 형사사건들에 관심이 많았고 글로벌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 해외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리서치 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판결문은 대법원 2022도 6462 판결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이었다. 해외에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에 방조한 혐의와 불법적인 외국환거래를 한 사건이었어서 흥미를 이끌었다. 해당 판결문에서 다루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선 한번도 배워보지 않았었기에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새롭게 배워가는 것이 많았다. 두번째 판결문은 대법원 2020도 14843 판결로,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학부 시절, 헌법학 수업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해 배우면서 큰 감명을 받았었고 우리 사회에 인권을 위해선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서 선택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아주 사소한 부분, 수많은 법관들 중 한명이라도 절차의 중요성이 무시된다면 인권의 역사가 손쉽게 퇴보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판결 내용이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처음으로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 방청을 해보는 진귀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형사법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형사사건이 단연코 가장 흥미로웠고 다양한 피고인들에 대처하는 재판부의 신뢰 가는 모습에 사법신뢰도가 높아짐을 느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누구든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법관들의 행태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활동과 공개재판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형사전문 변호사 또는 형사부 검사 또는 형사부 법관을 꿈꿔온 학생으로서 이번 활동을 통해 지켜본 법조인 분들이 큰 귀감이 되어 소중한 경험이었다.

○ 한양대학교 신 ○ 빈

대학에 다니며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 관련 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된 학생으로서, 법률연맹의 활동은 그 내용이 알차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학기를 활동하였는데, 먼저 2024학년도 가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고 해도 국정감사 활동을 분석자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들여다 본 경험은 없었기에, 법률연맹 활동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접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감사 일정에 맞추어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분석을 수행했는데, 저는 각 국회의원들의 발의 시간과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 태도를 평가한 뒤 가장 많이 발의된 주제와 쟁점 사항을 요약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먼저 국토위 감사의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질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내용은 소위 강통 전세, 즉 전세사기 임대차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응 미흡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던 문제를 그 대응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 이 어떻게 점검되고 평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위 감사에서는 최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관련한 한국문학번역원의 블랙리스트 지시 문제 및 고위층만을 위한 행사 진행과 접대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감사 활동이 어떻게 사회 문제와 맞물려 이뤄지며, 또 실무에서는 각 논란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문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질의가 예산, 정책, 언론 등의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된 것인지, 또한 질의 태도 등을 평가하면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였습니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

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어서 2024학년도 겨울학기에는 번역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코소보 헌법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정치 체계와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구조적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리며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률 용어와 문장 구조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기회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어중문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인만큼 중국어 관련 번역을 신청하여 한국 계엄 관련 기사를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뉴스 기사인만큼 쉬운 단어들 보다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국 언론의 표현 방식과 뉘앙스를 고려하면서도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계엄 사태를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인데, 특히 한국의 외교 문제와 GDP 관련 변화를 예측하는 중국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비교적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바꿔보면서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와 법적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비록 학업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느라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참가한 활동 하나하나가 매우 알차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법에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법률연맹에서 겪었던 봉사활동들은 제게 소중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한 학기를 유익하고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신 ○ 성

저번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에 참여하면서 더욱 더 많은 배움과 봉사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학기와는 다른 종류의 봉사들 또한 경험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와 언론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세 봉사활동 모두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기에 더욱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법부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껏 법원을 직접 방문해볼 일은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 방청을 간다는 것이 긴장되기도 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으러 오는 수감자들도 있다 보니 조금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재판부를 모니터링하는 봉사자의 의무감을 다시금 되새겨보니 그러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더욱 재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느낌 점은 생각보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재판장의 모습은 서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질책하고 물어뜯는 모습이었는데, 실제 재판을 할 때나 건조하고 칙칙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증거 등의 서류 위주로 서면 재판을 진행하다보니, 막상 피고와 원고 혹은 피고인과 검사가 대면하여 진행되는 공판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이 신기했습니다. 예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행정재판에서 약 20개의 판결을 5분만에 선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로서 법원에 가서 직접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니 주권자로서 뿌듯한 느낌도 들었고, 사법부가 더욱 원활히 작동 될 수 있도록 저희 뿐만이 아닌 다양한 일반 국민들 또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법원을 감시하는 방안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두 번째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아무래도 이미 경험했던 활동이기에 지난번보다는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이가 매우 길고 어려운 법적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는 판결문을 읽고 그 속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로 판결을 내렸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나 논리를 배우고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형사

재판 관련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독특하게도 피고인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형사 재판이기에 법적 쟁점들이 명확했는데, 그럼에도 2심 재판부에서 판결이 뒤집혔던 것이 놀라웠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판사는 법을 해석하는 직접이다보니 개인에 따라 법적 판단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더욱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규제하고 판단하는 틀이기에 대다수의 보편적인 눈높이에 맞는 법적 해석과 판결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더욱 배우고, 언론의 보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경향일보를 대상으로 <내란 혐의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경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슈 분석을 진행했는데, 현시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재판의 경향과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까지 예측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껏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번 언론 모니터링 봉사를 계기로 이러한 이슈의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저만의 판단과 관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의 보도 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도 있었는데, 중립을 잃고 편향된 여론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실태로 인해 사회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으며 모든 언론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지켜 올바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법률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이전 봉사 경험보다도 스스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과 관련된 봉사를 하여 더욱 뜻깊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신 ○ 윤

저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판결문을 읽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활동에 이어 2024 겨울학기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는 필수로 법정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각 민사, 형사, 행정으로 각각 3번씩 총 9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으로 4개의 법원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사건 방청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이 짧은 시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변론들과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엄숙함과 함께 재판과 법원이 주는 무게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 방청에서는 검사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증인에 대한 검사의 질문들과 발언들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밝히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사 사건 방청을 통해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을 처음 보았는데, 증인 선서를 할 때 드라마 속 법원에 와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사건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사명감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법학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비록 재판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다른 재판을 찾아야 한다는 점과 직접 법원에 가기 전에는 오늘 열리는 재판을 알 수 없어서 법원에 여러 번 방문했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총 5개의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조세와 민사, 형사의 분야로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들을 읽어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세 사건의 경우 어려운 숫자들과 세법의 개념들이 등장

한다는 점에서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을 끝까지 읽으며 공부해 나갔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

다. 나머지 민사와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읽으며 1심, 2심에서와 달리 3심에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와, 쟁점이 새롭게 잡혔던 판결문들을 읽으면서 판단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법률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법으로 개정된 후 이전 사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될 수 있을지를 쟁점으로 두고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법정 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을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경험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법률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인하대학교 신 ○ 호

안녕하십니까? 2024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신지호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법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향후 그 진로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을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봉사활동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

다. 우선,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법원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재판 과정을 방청함으로써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법조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지를 미리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청을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보다보니 법조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눈에 잘 들어왔고 더욱이 단점 역시 눈에 잘 보여서 미리 지양해야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무려 150개의 사실을 읽어가면서 이슈 별로 분석하고 분류하였는데 일간지 별 성향에 따라 나뉘어서 분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담겨 있는 글을 읽어나가는 시간이 제 스스로의 독해력과 상황 파악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활동한 3가지 활동 중 가장 재밌고 막바지에 급하게 하는 문제만 없었더라면 최대 6개까지 신청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양 당사자가 긴 시간동안 소송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한 것을 판사가 하나의 판결문으로 써내린 결과물이기에 그 안에 기승전결이 담겨 있고 짜임새가 뛰어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판결문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어나가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분석하였더니 스스로 글을 읽고 분석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자연스레 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된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한 것을 토대로 다음 학기에는 시간에 급박하지 않게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힙니다.

○ 한양대학교 안 ○ 은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이어 연속으로 2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의 추천으로 지난 학기 처음 봉사활동을 했을 때,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큰 흥미를 느꼈고, 당시 1편의 리서치 밖에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은 휴학 기간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학기 저의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만 30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제가 진행한 리서치는 총 6편으로,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형사 판례를 위주로 보았으나 점차 다양한 법률과 사건을 다루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 사건 4개(공무집행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업무상 과실, 업무상 배임, 주거침입)와 민사 사건 2개(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등, 근로에 관한 소송)를 리서치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사

와 민사만으로 구별한다면 형사 사건이 보다 많지만, 주변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범죄 사건에 대해 최대한 다양하게 리서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히 판결문을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외에, 다양한 범죄와 그에 관련된 법리 그리고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 등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논리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봉사활동에서는 한 편의 리서치만을 진행해 판결문 리서치의 의의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판단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본격적으로 여러 편의 리서치를 진행하고 약 20편에 가까운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다 보니 판결문 리서치라는 이 봉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서치한 판결 중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분야적인 관행으로 인해 사실관계와 쟁점, 그에 따른 법원의 판례까지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한 사건(허위진단서 작성 및 업무상 과실)도 있었고, 저와 같은 대학생이라면 평소엔 쉽게 접하기 어려울 회사 감사 사안에 대한 사건(근로에 관한 소송), 일상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판결문에서 이를 표현하는 법률적 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에, 피고인의 누범과 저지른 여러 범죄로 인해 경합하여 판결문을 작성함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주거침입) 등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들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판결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건을 겪거나 접한다면 그에 관한 상황과 법률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는 일차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실관계와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봉사일 것입니다. 이번 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은 곧 사람들에게 사건과 판결문, 법률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그러한 관심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중에서도 판결문 리서치 봉사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봉사를 통해 저 또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의 복학을 마치고 이번 학기 다시금 학과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판결문 이해를 중점으로 하는 학과 수업들을 수강함에 있어 판결문 리서치의 경험이 큰 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1심 판결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할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했으나 1달이 지나 처리가 되어 리서치를 제때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많은 봉사자분이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질문에 답변해주시고 리서치를 검토해주신 담당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서 작성했듯이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에 대한 아쉬움으로 신청했기에, 봉사의 모든 부분을 판결문 리서치로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더 다양한 판결문을 접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고, 판결문 리서치를 위해 미루어두었던 다른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오 ○ 연

1. 법원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은 단연코 법원의 실무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인의 논리 전개 방식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법률 실무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론적 지식과 실무 간의 차이를 체감하며, 법률 해석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평소 '법의 해석'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판사들이 법의 흥미를 보충하기 위해 어떤 법리를 구성하고 사고하는지를 생생하게 들으며 법 해석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되었다.

2. 예측 불가능한 공판 일정과 도전

본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판 일정 확인의 비효율성이었다. 법원까지의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공판 일정 확인이 불가능하여 매일 아침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당일 재판 일정을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각 재판부의 재판 운영 방식, 증거 조사의 진행 절차, 변론 구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3. 판결문 리서치를 통한 법과 기업의 연결 고리 탐색

판결문 리서치 활동 또한 법률적 이해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상법 및 민법 관련 판결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기업 경영과 법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상사 거래 및 계약 관련 법률이 실제 분쟁 해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법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나에게, 본 활동은 법률적 시각에서 기업 운영의 필수 요소를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4. 법률 실무와 기업 경영을 잇는 배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과 기업 운영 간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재판장, 대리인, 사건 당사자들이 치열한 공판에서 법률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질서를 정초해나가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가진 기업 경영에 대한 확신과 그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계기였음이 틀림없다.

○ 고려대학교 우 ○ 현

학교 '형법'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사례 하나를 들어주시고, 이 사례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냐고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교수님께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다시금 저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이것이 법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입니다. 어떤 판결을 보고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욕을 하려 하지만, 법을 배운 사람은 이해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형법에 특히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법률원고 작성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적색수배서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교내에서 진행한 논문경연 및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로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저의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재판을 실제로 방청해보는 활동이나 판결문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어디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 활동들을 찾아보았고,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이런 저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완벽한 활동이라 생각해 신청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저는 크게 두 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법정 모니터링은 법원에 가서 실제 재판을 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활동들과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리서치 하는 것이기에 중대한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을 위주로 하게 되지만

법정 모니터링은 폭행, 교통사고와 같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안부터 사기, 마약범죄 같은 중대한 사안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문 리서치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안을 다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법정 모니터링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재판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한 재판이 5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1시간동안 약 15건이 넘는 사건을 재판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나 원고측이 불출석하여 재판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사건을 판결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으나, 다루어야 하는 사건이 너무 많았으니 한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점, 증인 신문의 경우 1시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또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이 연기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 분위기가 생각만큼 삼엄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판사분들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시고, 검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증인 신문을 할 때도 경어를 사용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특히나 1심,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법원에서 판단 근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생각해볼 점이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법 해석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과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부호, 문언 등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만 하면 되고 내용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법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윤 ○ 진

어릴 때부터 법정드라마나 책 등에 흥미를 느꼈던 저는 그 당시부터 자연스레 법에 대해 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목격하고, 공부도 하면서 법의 중요성을 더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이러한 저의 관심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신청한 후 제가 참여한 활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번째는 번역봉사였습니다. 저는 외국어에도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법조문이나 관련 글을 번역하는 번역봉사는 저에게 딱 맞는 활동이라는 확신이 들어,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번역하게 된 것은 일본의 외국인변호사법이었습니다. 먼저 외국인 변호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아서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번역을 진행하며 조문 내용을 찬찬히 살필 수 있었는데,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들의 일과 활동 방식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ai, 딥시크에 대한 중국 기사들을 직접 몇 가지 찾아 번역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딥시크가 뜨거운 논쟁거리였던만큼, 중국 당국의 반응을 직접 찾아보며 살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중국의 반응까지 정리하며 딥시크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슈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나라들을 우려하게 했던 관세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일본 기사들을 찾아 번역했습니다. 이 역

시 일본에서 관세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응과 비교해보기도 하며 관세정책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만큼 유익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총 9회의 모니터링을 해야했고, 저는 민사재판 3번, 형사재판 3번, 행정 혹은 소액재판을 3번 방청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기회를 얻어 방청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방청을 하기 위해 법원에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법원이 일반인에게도 꽤나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법을 알아보거나, 필요할 때 법의 도움을 받기 쉽도록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을 방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나오는 법정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정 속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차분했고, 형식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 사건에 대한 재판들이 척척 분주하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재판을 꼭 지켜보면, 필요한 절차들이 모두 진행되고 있고, 억울한 당사자가 없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판을 방청하러 온 당사자들이나 형사재판의 피고인 등을 보며, 국민 누구나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 법원이 우리 일반인과 동떨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형사, 행정 및 소액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각 재판의 차이와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모니터링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유익한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제가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기대했던 것들을 모두 충족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도 법과 관련해 지식습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며, 법조인이라는 꿈을 더 키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 증부대학교 윤 ○ 현

이번 겨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법률과 그 적용에 대한 관심이 언제나 있었지만, 실제로 법률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처음에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제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곧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바뀌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신청 한 후 법정에서의 경험은 경험을 중요시 하는 제게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다루어지는지를 관찰하면서, 법률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을 분석하는 것은 저의 사고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지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법률적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제게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률이 단순한 규정의 나열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토대와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통해 법적 기준과 국가의 법적 가치관의 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각 리비아와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그 법의 배경과 역사,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법과 외국법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각국이 중요시하는 법적 가치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법률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법적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정치적 및 법률적 시각을 넓혀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은 저의 법률적 마음가짐을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법률적 사고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으며, 앞으로의 경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자부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이 ○ 윤

나는 현재 법조계로의 진로를 목표로 하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학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 변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법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큼이나 실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법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경험해보기로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우리나라에서 사법 감시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로, 법조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을 제공한다. 나는 이곳에서 국정감사 분석,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다양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며 내 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또한, 법정 모니터링 활동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법정에서 실제 변호사와 판검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직접 듣고 관찰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그들의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체계적인 법리 적용 방식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를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고, 로스쿨 입학 후에도 실무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나의 진로를 위한 중요한 경험이었다. 봄과 여름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과 더욱 가까워지고,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법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 성균관대학교 이 ○ 민

이번 학기 무사히 봉사활동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쁩니다. 2023년 겨울학기에 한번 해보고, 두 번째 활동이었는데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

다. 처음 법정모니터링을 위해 법원을 방문했을 때는 긴장되었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여러 변호사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전문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법원만 방문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등 여러 개의 법원을 방문하며, 각 법원들의 공간적 특성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은 앞으로 살아가며 언젠가 겪을 수도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볼 수 있었고, 형사사건은 뉴스에서 보던 사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형복을 입은 죄수들 또한 처음 보았으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한 가해자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인물들과 재판을 보며 법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 검사 모두 자신들의 직업윤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법률 번역 봉사를 하면서, 세계 각국의 헌법과 문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 활동에서는 미국의 법을 번역하였지만, 이번에는 이란, 라이베리아, 라오스, 아일랜드의 헌법을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체제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이란은 신권체제가 자리잡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종교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 활동을 하며 세계 각국의 법 지식과 문화 그리고 영어를 익힐 수 있었으며,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여러 법원과 사건들을 보며 견문과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동국대대학원 이 ○ 진

평소 피해 상담사를 꿈꾸고 있었고, 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에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처음 법원을 방문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꼈으며, 일반인이 법정을 참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하지만 직접 재판을 보며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 사법 체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민사 재판에서는 주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이 다루어졌고, 변호인들이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는 점을 배웠다. 반면,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판사의 중립적이고 냉철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사 재판을 참관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는지 알게 되었다. 증언을 해야 하는 순간,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 가해자와 마주해야 하는 불안감 등이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느꼈다. 또한, 변호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앞으로 피해 상담사로서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고, 그들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소액 재판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다투는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법적 절차를 안내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행정 재판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주를 이루었으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특히 행정 소송이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서 정책 판단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으며, 법원의 판결이 행정 절차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볼게 되었다.

이번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또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철저한 절차와 논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면서 법원의 역할과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법원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법정이 나와는 먼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나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법률적 문제를 접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깨달았다.

특히 형사 재판을 보면서 법을 어기는 일이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다. 작은 실수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으며,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피해 상담사로서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법적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법이 단순한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장치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면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 경험을 법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줄이고, 법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서강대학교 이 ○ 민

2023년도 겨울학기, 2024년도 봄, 여름, 가을학기에 이어 2024년도 겨울학기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의 필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었

나, 저는 앞선 학기들에서 이미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해보았던 터라, 이번 학기에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제가 2023년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시작하던 시점부터 꾸준히 해오던 봉사활동입니다. 봉사 초창기에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이 정말 낯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판결문을 자주 접해볼 기회도 전무하였고, 판결문의 구성이나 법률 용어 등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 학기 꾸준히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해나가면서 점차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판결문들을 읽다보니 판결문의 흐름과 법률용어들이 익숙 해져갔고, 이번 학기 판결문리서치 활동에서는 여타 다른 일상적인 글들만큼이나 판결문이 친숙해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고, 판결문리서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작은 부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 활동의 큰 매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학생으로서,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법절차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판결문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거나, 법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법률 용어를 풀어 설명하거나, 판결의 요지를 명확화해줌으로써 판결문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일도 판결문리서치의 큰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바가 많은 만큼, 다음 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에서도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 충북대학교 이 ○ 진

우연한 계기로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겨울방학을 계기로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 전에 여러 후기들을 찾아보았는데, 채택봉사여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유익한 활동이었다는 이야기를 접해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신청하였다.

가장 기대되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법조인을 꿈꾸지만 법원이라는 장소가 주는 위압감 때문인지 그동안 쉽게 가보지는 못하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첫 번째 법정 모니터링에서는 재판 진행 과정과 분위기가 낯설고 사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판에서 사용되는 모르는 언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재판 당사자나 재판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보니 점차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0번의 모니터링 중 인상 깊었던 재판은 6회차에 진행되었던 중금속상 건이었다. 재판을 보면서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고 느껴졌는데, 재판이 끝날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발언을 듣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공소외인으로 그 외의 인물이 되어 증인 역할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 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가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재판부가 피해자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에 대해 분석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판결문에 쟁점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직접 재판부 판단을 요약하면서 쟁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부터 복잡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다수거나 여러 법령이 적용되는 사건도 있어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해당 활동을 통해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이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구성요건이나 법리, 적용 법령, 판례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증거나 진술을 직접 살펴보는 못하지만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봄으로써 흥미롭기도 하였다.

두 활동 외에 언론 모니터링과 번역봉사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약 2개월 동안 작게나마 현장감을 느껴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뿌듯하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활동을 신청하여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다.

○ 연세대학교 이 ○ 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의 역할과 사법 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다. 법정은 단순히 법 조항을 적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논리가 충돌하며 조율되는 곳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태도까지 포함하여 법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번고를 겪어 중간에 법문이 어려웠던 점이 있지만 금방 회복되어 방청할 수 있었다.

법정을 이끌어가는 판사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판사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의 질문이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느낌을 받았다.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에서 의도를 파악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느껴졌다. 반면, 임대차 사건에서는 판사가 다소 부드럽고 조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이므로 조정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원·피고를 차분하게 중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검사는 법정에서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공소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특히,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사안에서는 강경한 태도로 증거를 제시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임대차 사건과 같은 민사 사건에서는 검사보다는 변호사들의 공방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보다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공소 유지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임대차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설득력이 중요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변호사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감성적인 호소까지 활용하기도 했으며, 반대로 임대인의 변호사는 계약의 원칙과 재산권을 강조하며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했다.

법정에서 가장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역시 원고와 피고 본인이었다. 특히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원고인 노동자는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박한 태도를 보였으며,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반면, 피고인 기업 측 대표자는 계약의 정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며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었다.

법정은 단순히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조율하는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같은 법 조항이라도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정에서 벌어지는 논리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같은 노동 관련 사건에서는 법과 경제 논리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고, 내란죄 사건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임대차 사건에서는 법이 개인의 일상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판사의 역할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조율자이자 결론을 내리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다가왔다. 또한, 변호사들의 논리적인 변론 방식과 검사의 공소 유지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네 가지 판결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적 쟁점과 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각 판결은 노동법, 저작권법, 민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의 적용과 해석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20 다300299)

이 사건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러한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노동 현장에서의 임금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의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여부 (대법원2024도1856)

이 사건은 주원료가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 간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주원료가 상이하더라도 제품의 유해성이 유사하고, 각 업체가 서로의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3. 매장음악서비스의 웹캐스팅 음원 재생과 공연권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다290386)

이 사건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생 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매장에서의 음악 재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용료 분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타인 토지 위 분묘 설치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다300228)

이 사건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오랜 기간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분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관습과 현대 법체계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판결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이 ○ 재

최근 법정모니터링 봉사와 헌법번역봉사를 수행하면서, 법과 정의의 실현이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한 과정인지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두 봉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법 체계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법률의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적용방식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봉사는 실제 재판과정을 직접관찰하며 재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체험하는 활동이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면서 판사, 검사, 변호인,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제시 과정이 인상 깊었다. 법원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정되는 장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판사의 태도나 변론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법적 판단이 단순히 법조항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인간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깨달았다.

헌법번역봉사는 법률용어와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

로서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이 아니라 의미와 법적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간 법적 표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사고방식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또한, 헌법소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며 공부하는 과정은 법률문서의 해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두 가지 봉사를 통해 나는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실무적인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헌법번역을 통해 법률언어의 정밀함과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향후 법률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법을 통한 사회정의실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법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나가고 싶다.

○ 가톨릭대학교 졸업 이 ○ 진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매우 막막했다.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적도 없었던 법원이 어디있는지도 몰랐다. 법학과를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재판을 방청 할 생각을 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어서 의미 있게 두 달 정도를 보낸 것 같다. 처음에는 형사재판을 방청을 하였는데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방청 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그렇지 모든 재판을 방청을 미리 신청을 해야만 방청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귀찮기도 했고 신청이 거부당하면 방청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유명인들 재판의 경우는 사람들이 몰릴 사태를 대비하여 방청 신청을 받는 것이었고,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원을 찾아가서 일정표를 확인하고 방청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걸 깨달은 후로 재판에 무작정 찾아갔지만 당사자가 아닌 내가 남의 재판을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특히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자에 앉아있으면 민사재판의 경우 많은 변호사들이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나밖에 방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웠고 괜히 주눅이 들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변호사들이 없는 법정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10번 정도 법정모니터링을 하였지만 이런 부담스러운은 보고서를 쓰는 지금까지 생생하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유명 정치인 2건의 재판을 방청하였는데, 유명 정치인이라 그런지 법정경위들의 감시와 제재가 엄청 심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큰 불편한 점은 재판 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처럼 재판을 방청하고 싶은 사람은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법원 게시판에서 재판 일정을 확인해야만 오늘의 재판 일정을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행정법원을 월요일에 갔는데 법원 게시판에 어떠한 일정표도 뜨지 않아 당황했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법원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재판은 급한 재판이 아닌 이상 월요일에는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날은 아침부터 법원 간다고 준비하고 나갔는데 하루를 날린 것 같아 매우 허무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나의 진로에 대해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양복입고 서류가방을 든 변호사들을 많이 보면서 언젠가 꼭 나도 방청을 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의뢰인을 위해 양복을 입고 서류가방을 들고 법정에 들어서고 싶다고 다짐했다. 법정모니터링 말고도 번역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번역봉사활동은 평소 영어에 자신도 있고 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번역봉사활동을 통해 이라크와 자메이카의 헌법을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 헌법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자메이카에 대해 조사하면서도 아예 몰랐던 나라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매우 뜻깊었다. 원래는 겨울 봉사활동만 하려고 했는데 봄 봉사활동도 신청하려고 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이 ○ 영

2025년 2월 11일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총 11회차

의 법정모니터링을 마친 직후 가장 먼저 든 느낌은 '뿌듯함'이었다. 그 이유는 겨울방학을 알차게 잘 보냈다는 느낌과 동시에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법원에 가서 우리나라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방청 내내 매우 설레고 기쁜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한편, 그와 동시에 씁쓸한 감정이 찾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재판 방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성범죄나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방청할수록 더욱 그랬다. 어쩌면 이 세상에 모든 갈등은 돈, 순간적인 감정, 그리고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방청 도중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이 세상이 더 나았을지도 몰랐을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나아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법조인분들, 판사님들과 변호사님 그리고 검사님들에게 경외심이 들었다. 특히 검사님들의 경우 사건 준비를 매우 치밀하게 해오시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셨다고 생각이 들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저 정도의 말과 업무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안 되었다. 또한 판사님들도 그 수 많은 재판들을 다 처리하시고 검토하신다는 사실을 보며 정말 워커홀릭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법조인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분들의 지식과 노력에 속으로 매우 감탄하였다. 평소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분들의 태도였다. 물론 죄를 지은 피고인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변호인분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마치 피고인들을 위한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변호인분들의 직업정신이 매우 투철하다는 생각이 방청 내내 들었다. 피고인들도 변호인분들의 노고를 잘 이해하여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법원경위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방청 초반에 잘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던 나를 잘 안내해주셨으며, 재판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헌신 덕에 우리나라 사법부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방학에 이런 봉사 활동을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시간이 필요해서 찾아왔을지는 몰라도 활동을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 일종의 사회경험도 간접적으로 한 것 같아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우리나라 법조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매우 부족하고 나아가야할 길이 많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매 순간 헌신할 예정이다. 매 순간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감정들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진로와 목표가 조금이나마 분명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 백제예술대학교 이 ○ 규

2024년 겨울, 친구와 대화를 하던 도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던 나는 봉사활동이라는 단어 자체는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가서 직접 선고를 듣고 공개된 판결문을 보고 요약하고 내 생각을 서술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란 소개에 흥미가 많이 생겼다. 마침 겨울학기 봉사자 모집기간이 연장되어 나도 신청할 기회가 생겼고, 망설임 없이 바로 신청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봉사자로 합격되었다는 메일이 왔고, 그렇게 나의 첫 법소연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에는 번역봉사, 언론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은 단연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였다. 오메일을 회신드리며 바로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신청했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고민하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연말을 보냈다.

그러나 막상 법정 모니터링을 하러 법원에 가려니 약간 두렵기도 했다. 평생 한 번도 갈 일 없었던 법원에, 심지어 내가 재판 당사자도 아닌 재판을 방청하러 가서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가서는 안 될 불가침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었다. 아마 법정은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라 생각했던 나의 생각 때문이라. 그래도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 생각하며 동부지방법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나의 생각만큼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방청하기 편했다.

그렇게 첫 법정 모니터링을 마치고 담당자님께 메일로 검수 받은 후,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법정 모니터링보다는 쉬울 것 같은 판결문 리서치를 해보자 생각하며 첫 판결문을 열었는데 아뿔싸. 생각보다 판결문은 읽기가 너무 딱딱했다. 이걸 6개나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며 판결문 리서치 양식대로 작성을 하던 도중 원가 눈이 트이는 느낌이 들며 잘 안 읽었던 판결문이 어느 정도 술술 읽히기 시작했다. 탄력을 받아 열심히 작성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은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큰 사건의 재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였다. 내가 중학생이었던 시절 우리 아버지는 본인의 직업사명감을 걸고 회사와 큰 재판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3심까지 가 승리를 거둔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다. 본인의 근심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큰 뜻이 있었겠지만 이제 성인이 된 나로서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의 허락을 구한 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 담당자님께 아버지 재판을 리서치해도 되겠냐는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도 허락하셨다.

아버지 사건의 판결문의 분량은 굉장했다. 많은 징계조치 때문에 시시비비를 다투는 항목이 너무 많아 쟁점을 요약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판결문을 두세번 정독하며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다.

법소연의 봉사활동은 지난 시절의 나처럼 법과 재판에 대해 어렵고 딱딱하다고 편견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 판결문을 좀 더 쉽고 이해하게 쉽게 풀어서 요약하고,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법조인들이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자정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어 그대로 봉사활동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봉사활동으로 국민 여러분이 법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은 영향이지만 나 스스로에게 더 유익한 봉사활동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없었다면, 법소연에서 봉사활동을 앞장서서 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법조인의 꿈을 가진 법을 무서워하는 아이러니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법소연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고, 온 줄게 기회를 잡아 나 스스로의 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준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학기 봉사활동도 꼭 해보고 싶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 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언론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과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평소 법률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로 판결문을 분석하고 언론 보도를 비교하는 과정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단순히 뉴스를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론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사에 따라 보도 방식과 논조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같은 사실을 다루면서도 일부 언론은 특정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언론은 반대되는 시각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면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정보를 접할 때 한쪽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정이라 어려움도 많았다. 법률 용어나 판례 해석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특히,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각각 다른 논리를 바탕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비교하면서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판례를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쳤지만, 점차 판결이 내려진 배경과 쟁점을 분석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스스로 분석한 판결문과 기사 비교 자료를 정리하면서 법률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법이 어렵고 복잡한 규칙이라고 생각했던 이전과 달리, 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판결 하나에도 수많은 고민과 논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 보도를 접할 때도 단순히 기사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나 맥락을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언론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법이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과정이며, 언론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는지가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법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며, 어떤 정보를 접하든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 충북대학교 이 ○

저는 12월부터 2월까지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법적 논증의 흐름을 익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법적 주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법률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주어진 사건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판사의 판단 근거를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조항이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를 보며 법률 해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비교하면서 판사들의 논리를 분석하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법률적 개념을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형법과 관련된 판결문을 읽으며 법률적 논증 방식과 판사 및 대법관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판사들이 각 사건에 대해 어떻게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 원칙과 사회적 가치 판단이 결합되어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반대 의견이 판결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진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법률 논증이 단순한 결론 도출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고 논의되는 과정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실제 변론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논증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설득 기법과 판사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토론과 논증 과정을 보면서 판사들이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과 변론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 분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법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에는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간 관리의 중요성

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 기한 내에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법률 소비자 연맹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률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임 ○ 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단순 호기심이었습니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무료한 방학을 보내다가 봄학기가 시작하기 전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때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살펴본던 와중에 법학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법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법학 공부가 어렵다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 어렵듯이 듣기만 했을 뿐 법에 대해 보고 들은 게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봉사활동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처음으로 한 번역봉사에서는 이스라엘 헌법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랜 기간 종교, 민족 간 갈등으로 난민과 소수 민족이 나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들을 위한 의식 수를 확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제도가말로 서로 간의 다양성, 차별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법정모니터링이라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한번도 법원에 가본 적도 없고 법정 들어선 적도 없었습니다. 첫 모니터링 당시 형사재판을 방청했는데, 익숙한 분위기에 조금 긴장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고 당사자의 변론이나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한 후로부터는 저 스스로 사건에 대해 증거는 충분할까, 검사가 제시하는 형량은 적당할까 등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방청했고,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피고의 안일함이나 그릇됨에 조금씩 놀라기도 하며 재판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경우 형사사건만큼의 당사자 자체에 대한 흥미로움은 거의 없었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되어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가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리서치 또한 인상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재판관들이 어떤 근거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지, 사건 전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법적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어떻게 찾는지 등 판결문에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법률 용어를 직접 찾아보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현이나 문장을 두어 번 읽어보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조금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치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경우 등 재판당사자를 대신해서 참여하는 법정대리인들의 다양한 이력을 찾아보는 활동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험은 저에게 보람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전에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에 대해 탐구하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전공인 경제학에 대해 공부하면서 법 관련 교양 수업을 조금씩 수강하며 관련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꼭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수도 있는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경희대학교 임 ○ 재

여러 방면으로 법을 검토하여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정말 의미있다고 생각해 앞서 두 차례의 봉사에 거쳐 다시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싶었으나 졸업을 앞둔 시점 여러 시험들을 준비하게 되

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나는 이번 학기 총 6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나는 2월 말에 되어서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기에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1심, 2심을 포함해 모든 판례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있는 판례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모든 판례가 업로드되어 있는 사건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화제의 판례'에는 대부분 모두 제공되어 있지만, 그 외의 사건은 거의 공개되어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최신 판례가 관련 정보도 적기 때문에 사법 리서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해 최신 판례를 조사하고 싶었지만, 이러한 문제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재판공개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는 재판 및 판결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판례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를 조사해보고 싶다. 내가 조사한 6가지 사건은 대부분 행정소송이었다.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직업병에 대한 임금적용에 대한 문제 등이었는데, 전에 조사했던 판례들에 비해 용어가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 법을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결의 요지인 만큼 판결문에는 판사가 법리를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가 적혀있다. 하지만 적용된 법리에 대해 그저 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법적 용어들 또한 많이 등장하는데 쉬운 단어로 대체하거나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알기 쉽게 정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1심, 2심과 다르게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조사한 판례에선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이 대법원에 가서야 차별이라고 인정받게 되었고, 가스누출사고에 따른 노조 조합원의 근로 중지가 대법원에 가서야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모두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3심까지 가서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도 이를 개선하기까지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판례가 기준이 되어 관련한 많은 사건에 영향을 주는 만큼 내가 조사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 전반적인 근로의 환경을 개선시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사건 하나하나에 신중하고도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편 각 법원마다 같은 사건에도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두 관련 법을 해석해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자칫 판사의 주관적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느꼈다.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라면 입법자의 목적을 고려해 더 큰 시각에서 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을 위하는 법의 목적이 잘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어떠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법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던 경험이었다.

○ 덕성여자대학교 장 ○ 윤

사실 저는 제가 법학과에 진학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잠시 막연하게 변호사라는 꿈을 가졌지만 입시 당시에는 이를 구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전공을 우연히 만났다가에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우연히, 운명처럼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법은 태초부터 인간과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법학 공부 또한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부에서 배우는 법은 생각하던 것과 180도 달랐습니다. 인간을 벌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 형법은 인간을 교화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고, 형사소송은 개인과 싸우는 것이 아닌 국가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상상 속 법과 책으로 배우는 법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과연 진짜, 현실에서는 어떻게 공금증이 생겼습니다.

법학과 연관된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중 동기에게 법률소

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추천받았습니다. 책으로 배우던 내용을 능동적인 자세로 관찰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활동의 시작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미시적으로 배우던 범죄 각칙과 논리를 판결문에서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흥미있게 보았던 판결문을 선택했는데도 나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도 직접 써봐야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몇 시간을 붙들고 있었더니 다음 판결문부터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판결문을 리서치하였는데 그중 스토킹에 관한 판결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몇 년 전 누가 따라오는 일을 겪은 후 스토킹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스토킹의 피해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전화를 받거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아도 화면에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가 떴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한 발 나간 느낌이었습니

다. 모든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시간과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고 여러 번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어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담감을 이기고 처음 모니터링을 한 날 희릿해지던 나의 꿈을 환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있었는지, 어떤 미래를 바랐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병원 못지않게 생사의 운명이 오갔고 누구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법학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꾸준히, 계속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체한 3개월간의 봉사활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법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깊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잊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서강대학교 장 ○ 진

지난 2023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의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저에게 매우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서 재판에 참석해보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고, 이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겨울학기에도 NGO 단체로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수호하며 이를 저해하는 국가 세력의 행태를 감시, 고발하겠다는 비전 아래 여러 시민운동, 공익활동, 봉사활동 등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일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힘쓰고 싶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참여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입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며 판결문의 쟁점과 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판결을 접하며 판례법리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법률 용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 기사로만 접했던 사건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며 몇 줄에 불과한 판결의 내용 하나하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법한 정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과 손해 배상해야 하는 불법행위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조사하며 사법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실감하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실제 법원에 찾아가 재판을 방청하는 과정에서 법정의 분위기, 변호인, 법관, 검사의 태도,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의 태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크게 화제가 된 사건들은 직접 법원 홈페이지에서의 신청을 통해 방청해보며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판결문을 읽어보는 것에서 나아가 재판의 실질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대부분이 2~3분 내외로 짧게 진행되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법정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 리걸마인드를 함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판결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법정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국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률이 실제 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판결문을 분석해보고 또 직접 재판을 방청한 이번 봉사활동은 법조인으로서의 길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 활동 이외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활동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장 ○ 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을 통해, 법과 관련된 사회 구조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법조인에 대한 꿈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에 법조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싶어 봉사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과실, 스토킹, 근로자 정직 처분 무효, 명예훼손 사건 등 여러 판결을 통해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판단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과실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판단과 행동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의료진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환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윤리적 고민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정서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 정직 처분 무효 사건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실을 찾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판결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뉴스 기사로 접했던 사건들이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들도 많은 고민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법이 단순히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 또한 매우 유익했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판결이 내려지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 법정에서의 절차와 법률적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되고 싶은 검사의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 처분을 내린 후, 피고인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검사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역할이기에 강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조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과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의 공정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검사로서의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가 법조인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법률 현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해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체계임을 깨달았습니다. 법은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조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제게 이러한 큰 영감을 주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다음 봄학기에는 더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경험을 쌓고,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법률 문제를 접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더 나아가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장 ○ 서

2024 여름학기에 처음 소비자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한 이후 이번 겨울학기에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10대 일간지 사설 분석),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평소 국가폭력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건과 관련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례에 관해 조사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현대사 속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번에 조사한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결정이 유의미하게 변하게 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를 하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국사학과 법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한 사건과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스스로 파악하여 정리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원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고 어려운 판결문이었지만,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점점 판결문 읽는 법을 알게 되고 법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10대 일간지인 경향-서울-한겨레신문, 국민-동아-문화-세계-조선-중앙-한국일보에 일주일 간 게재된 사설들을 전부 정리하여 분류하고 비교-분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 마지막 주에 게재된 56개의 사설들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게재한 윤대통령 기소,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中 답시크 쇼크 등에 대한 사설들을 요약 정리하고 종합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을 하며 뉴스나 기사로 여러 번 접했던 이슈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와 사회 분야의 사설들에 관해 언론사들이 가지는 주요 관점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에 관해 어떤 언론사에서는 LCC(저비용 항공사) 안전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다른 언론사들에서는 배터리 기내 반입 문제나 항공사의 부실 대응 문제를 더 중심으로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분석

하며 한 사람이 사회 이슈나 사건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데 있어 언론이 가지는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에 처음으로 해본 활동은 필수활동이었던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직접 방청을 해보니 재판 현장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법조인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지금 이번 겨울학기에 했던 활동들을 되돌아보면, 단순히 법 그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력을 기르고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현장까지 경험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봉사활동을 하고 나니 다음번에는 저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더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선택하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봉사활동 때에는 사법감시배심원단 등 이번에 하지 못했던 활동도 해보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도 더 다양한 판결 사례들을 찾아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 일반 정 ○ 완

법 관련 봉사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던 중 우연한 기회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이 매우 흥미로웠고 대부분 활동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상황에 맞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인데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재판 진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 등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본인의 소임을 수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미래의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꿈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코소보 헌법을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다 보니 각 나라의 인종, 문화가 달라도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 부분 공통점이 많았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각 나라의 특색들을 반영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찾아보고 관련된 당사자들과 판결을 조사하는 판결 리서치 활동은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을 재판부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는가 배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판결 리서치 활동을 통해 각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재판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알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상황에서 실정법에 비추어 무엇이 정당한지, 어떻게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 재판부의 고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법과 관련된 활동이다 보니 전보다 법과 더 가까워지고 익숙해질 수 있는 경험이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지원하고 싶습니다.

○ 단국대학교 정 ○ 희

2024년도 겨울학기에 법정 모니터링 활동, 번역 봉사활동, 판결문 리서치 총 3가지 활동을 하였다.

법정 모니터링의 경우 이번 겨울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다. 법원에가서 재판을 방청하며 방청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는 형식의 활동이다. 법정 모니터링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에 법원에 갔을 때 엄숙한 분위기에 당황하고 무서웠지만 법정 모니터링 활동으로 여러 번 법원에 방문하니 이후에는 편한 마음으로 재판을 볼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은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들을 수 있어 법학에 진로를 정한 사람

이라면 꼭 한 번 해보야 하는 활동이다.

번역 봉사활동은 다양한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는 활동이다. 이번 학기는 세계 각국의 잘 알려지지 않는 헌법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번 학기는 특히 헌법을 번역하면서 같이 해당 나라의 역사도 찾아보야 했기에 다양한 잘 알지 못했던 나라들의 역사 또한 알 수 있어 좋았다. 번역 활동은 해당 나라의 원문을 보고 한국어로 문장이 이어지게 번역을 해야 하기에 난도가 높은 활동이다. 법률이다 보니 긴 문장에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있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판결문 리서치는 판결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위 판결이 타 당한지를 따져보고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며 법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신청할 때 이미 학부 과정에서 배운 판결문을 신청하였다. 학교에서는 진도를 급하게 나가다 보니 판례를 쟁점만 보고 넘어가 깊이 알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1심, 2심, 3심 차례대로 읽으며 재판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각각의 해당 판결의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차례대로 읽으니 해당 사건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 특히 좋았던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적는 부분이었다. 앞에서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것을 내 생각대로 적을 수 있는 질문이었기에 리서치를 한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학부 과정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 보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을 하며 나의 전공 분야인 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겨울 학기 봉사 기간이 끝나고 나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하게 법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억에 남는 겨울 학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의미 없이 하는 봉사 활동이 아니라, 방향이 뚜렷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 의미 있게 봉사시간을 채운 활동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법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져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고 싶은 봉사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동덕여자대학교 정 ○ 민

학부 때는 외국어 전공자로, 직장생활 또한 수년간 법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아쉬움과 갈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준비 과정 중, 해당 분야에 대해 공부나 경험이 모두 부족한 저에게 실제 법률 현장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저는 세 가지 주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실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방청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법정 절차를 직접 관찰 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법관과 변호사, 검사의 역할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의 이론과 실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정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민사사건 방청 때, 많은 사건들을 진행해야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변호사 없이 법정 들어선 피고가 자신의 사정이나, 어려움 등을 법정에서 표현할 때,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충분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판사님의 모습을 보았고, 나 자신 또한 배운 것을 공익적이고 선한 활동에 활용하려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 헌법 번역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스라엘, 아일랜드, 라트비아 헌법들의 일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각국의 법적 체계와 사회적 배경을 비교할 수 있었고, 그 나라들의 법적 원칙을 고민하면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헌법에서는 그 나라가 규정한 기본권과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나라의 역

사가 헌법에 반영되기도 하는지,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판결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판례가 법률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게 되었고, 판결문을 통해 법리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을 찾아 읽고, 1심, 2심에서의 판결이 대법원까지의 과정에서 어떻게 법리 해석이 변화하기도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익숙치 않아,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판결문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추출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다소 도전적이었지만, 회사에 근무하면서 마주했던 문제들과 흡사한 상황을 찾아서 리서치를 진행하니,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제가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학이 단순히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가치관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 나가는 데에 의의가 있는 학문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은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 그치는 학문이 아닌, 여러 배경과 사정에 놓인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실현되고, 배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학문인 것을 다시 한 번 통감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중앙대학교 정 ○ 연

법조인이 되기 위한 꿈이 생긴 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로서는 법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봉사를 통해 법과 조금이나마 친해지고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리서치를 하기 위해 사건을 정할 때에는, 그나마 제 전공과 관련된 사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부당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다국적기업의 부당하고 관련 판례였습니다. 처음 판결문리서치를 하는 것이어서 헤매기도 많이 헤맸고, 판례를 읽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4건의 판결문리서치를 더 진행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판례를 읽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판결문리서치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은 법조인이 되겠다는 제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동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사건의 판결문을 읽어 본다면, 화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을 읽고,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피해 아동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이를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후 인권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후에 법조인이 되어도 아동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뿐만 아니라 9회의 법정모니터링 또한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은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관찰하며 법정에서의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판사의 판단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목격하고, 각 사건의 사회적 맥락과 법적 논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형사재판 선고입니다. 판사가 양형 이유를 말한 후 판결을 차례대로 선고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비해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많지 않아 내용 이해가 어려웠는데,

이는 이후 민법 공부에 대한 열의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판사가 원고에게 법적 조력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깊은 인상에 남았습니다. 딱딱하고 무서운 분위기로 진행되는 형사 재판들과 달리, 민사 재판의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따뜻하고 원고와 피고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앞으로 민법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법원 직원분들의 친절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법원의 분위기에 긴장했지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법조계가 단순히 딱딱하고 차가운 곳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앞으로 법조인이 되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태도로 다가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에서 벗어나,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동인권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쓰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학 전공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노동법이나 기업법과 같은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경험 이상의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제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넓게 생각하며, 더 따뜻하게 행동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다짐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제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 건국대학교 정 ○ 연

매 순간은 갈등이다.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시작점도 도착점도 달라진다. 나는 매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끝나면 공부하는 단조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다. 누군가 법적 갈등을 겪고, 피해를 입어도 뉴스에만 나오는, 또 드라마로만 접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사건들을 다뤄 보고, 사실관계와 갈등 쟁점들을 분석해보고, 내 언어로 바꿔보면서 이론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실무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접하다보니 더욱 이해가 잘 되었다.

첫 형사재판을 보고 나오면서 밖에 앉아계시던 어르신이 '혹시 저 박사님(피고인) 따님이세요?'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다. 딸은 아니고 그냥 재판 방청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리니 어르신 두 분이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사실 방청 당시에는 사실관계, 특히 변호인측 이 증인을 향해 쏘아붙이는 여러 질문과 답 사이 관계, 피고인이 어떻게 답을 번복하고 순응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다. 다만 방청이 끝나고 어르신 두 분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죄와 벌을 떠나 모두 각자 사정이 있고 개인들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결문 리서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었다. 평소 방영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나, '고교무' 같은 범죄 예능을 즐겨보는 편인데, 판결문을 직접 분석해보기 전엔 피해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만이 내 관심거리였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며 나도 울분이 올라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혹은 부모에게, 어쩌면 연인에게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지러 수 있는지 등의 감정에만 공감했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피해자가 불쌍해서' 혹은 '살인은 그냥 하면 안 되니까'라고 대답할 뿐 법적으로 왜 해선 안 되는지, 또 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등을 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만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우발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정말 모든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였고, 도덕적 규범이 아닌 실증적인 법규범과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최종 판결

을 내린다는 점이 새로웠다. 단순히 재판장 마음대로 '기본 나쁘니 무기징역', '기본 좋으니 무죄'라고 생각하며 법관들만 탓했던 과거를 반성할 수 있었다. (물론 실제로 이렇지도 모르겠지만)

다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최종 판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었다. 도덕적인 감정을 떠나서 범죄전력이 매우 다수이고, 징역을 살고 나와도 계속해서 범법을 저지르고, 음주운전 따위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피고인의 행동,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후 여러 피해자가 2주 넘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원동기 자전거 운행 중인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했는데도 최초 선고형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했다. 심지어 최종 구형도 3년으로 참작이 된 것도 의문이 들었다. 선고형을 바꿀 수 없어도 이런 상습범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 있을까? 아무리 면허취소를 해도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고, 묻지마 폭행은 예상을 할 수도 없어서 답도 찾기 힘들고, 단순히 교육 이수나 사회봉사만으로는 교화시키기 힘들 것 같다. 사후적으로 복역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세상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들의 '희생자 의식'에 갇혀 피상적인 사실관계밖에 보지 못한다. 특히 민사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들이 더 많다. 우리는 단순히 가해자의 죄악과 피해자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의 관계와 법리적 해석, 그로 풀어내는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 봉사활동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

○ 명지대학교 정 ○ 연

이번 2024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필수 봉사활동으로 법정 모니터링이 결정되었으나, 이전에 한 경험이 있어 다른 활동을 찾았습니다.

무슨 활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는 쟁점 파악을 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법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평소에도 판례를 많이 보지만, 대부분 이론 중심적인 수업으로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다수 판례의 판결 결과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 판례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총 6번 하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역시 논점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의 대부분이 하나의 논점 안에 세부적으로 논점을 또 나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논점으로 정해서 어떤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하는지가 항상 고민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판례는 '2023도6355 판결'이었습니다. 평소 청소년 관련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던지라 청소년 간의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에 더욱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보통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린 나이, 교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점,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판결을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판결입니다.

이처럼, 판례 하나하나를 제대로 분석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어서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 국립공주대학교 조 ○ 제

2024학년도 12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사회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법학과인 제 전공 특성상, 해당 봉사활동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법학을 전공했지만 막상 대학생활 졸업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았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필수 봉사활동인 법정 모니터링과 함께 판결문리서치, 번역봉사활동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총 3회로, 각각 '집합 금지처분취소소', '임금', '후원금반환청구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원래 성격상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또 해당 봉사활동이 처음이어서 그런 것인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학과 특성상 판례를 찾고 읽는 습관은 많이 길들여져 있었으나, 전문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활동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판례도 1심, 2심, 3심 차례대로 다 읽으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제대로 분석하는 활동은 이 활동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낯설어서 그런 것인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끝내고 나서 결과물을 보니 뿌듯했고, 갈수록 작성하는 것에 적응이 되어서 시간도 조금씩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결문 리서치를 마치고 나서 '내가 이 판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 매우 보람찼습니다. 말 그대로 유사 판례를 가져와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분석이 가능한 지식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총 9회를 했습니다. 형사재판 3곳, 민사재판 3곳, 행정재판 2곳, 소액재판 1곳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학교 차원에서 방청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 가는 건 이번 활동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첫 모니터링을 시작했을 때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건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적응이 안 되어서 힘들었지만, 두 번째 재판부터는 보다 수월하게 작성했기에 모니터링 활동을 넘어서 재판을 흥미롭게 보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사화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이 매우 많다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필수 모니터링 활동을 채우고 난 후에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재판을 골라서 방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선고를 받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피고인이 피사를 향해 달려들어서 보안 직원들이 제압하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눈물로 호소하는 피고인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어서 생소한 경험을 했던 기억은 아마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번역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헌법을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총10페이지 분량을 번역했습니다. 영어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조금은 긴장이 되었으나,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검색을 통해 해결했고, 간단한 문장들도 다소 있어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원, 하원 의원이 존재하는 구조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와는 정치 체계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배경지식도 얻으면서 번역활동을 했던 것은 나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이번 봉사활동은 상당히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법정을 드나들며 실제 법조인들의 역할을 보면서 꿈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었고, 판결문을 정독하면서 글에 내재된 논리 구조를 공부할 수 있었기에 학습적인 역량 또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님께서 피드백을 주실 때마다 배려해주시는 것이 느껴졌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시는 느낌을 크게 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른 공부와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 다소 힘든 활동이었지만,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어려웠던 부분들을 잘 해결해나가며 결과물을 제출하는 날이 되었을 때는 바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토대로, 다음에도 활동할 수 있을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조 ○ 현

나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법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법이 단순히 전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모두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았다. 또한,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분기 활동은 나의 첫 법률 관련 봉사 활동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방청을 통해 법정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는 활동이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재판은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따랐다. 판사의 중립적인 태도, 변호사들의 논리적인 변론,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등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사법부가 사회정의의 실현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헌법 번역 활동에서는 리비아와 리베리아의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처음에는 헌법 용어가 생소하고 난해하여 어려움을 느꼈지만, 점차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면서 문장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나라의 법 체계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게 되었고, 헌법이 단순한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번역을 통해 한국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는 작업이었다. 법률 문서는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나는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법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법률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하며,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이 단순히 법조인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헌법 번역을 통해 법체계가 국가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법률 문서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것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법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앞으로도 법률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법률 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를 통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 서울대학교 조 ○ 영

이번 학기 동안 법정 모니터링, 번역봉사, 판결문 분석의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각각의 활동은 법을 다른 시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력과 실무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실제 재판 과정을 방청하고, 재판장의 분위기와 각 역할자들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재판에 참여한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 각각의 발언과 태도를 기록하면서, 이론으로만 접하던 형사소송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판이 어떻게 달라지고, 판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지를 비교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변호인의 변론 방식에 따라 사건의 분위기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재판 현장을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법정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번역봉사 활동은 생소하면서도 뜻깊은 경험이었다. 키리바시 공화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

은 국가들의 헌법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 국가마다 헌법이 다루는 내용과 형식,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번역 대상이 한국법이 아니라 외국법이었지만, 법률 문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 선택, 문장 구조, 조문 해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이를 통해 법률 문서의 정밀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또한,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들의 헌법을 분석하면서, 인권, 통치 구조, 권력 분립 등 보편적인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분석 활동은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핵심 쟁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특히 마지막에 분석한 판결문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용자성, 부당해고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총 60쪽이 넘는 긴 분량과 복잡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방대한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각종 계약서와 다층적 법인 관계, 복잡한 운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및 근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판결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성과 사용자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법원이 플랫폼 노동 관련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지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 가지 활동을 통해 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이론으로만 접하던 법적 개념들이 실제 사례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생생한 현장감을, 번역봉사를 통해서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헌법 비교를, 판결문 분석을 통해서 복잡한 사안에서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법적 사고를 키우고, 현실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배우고자 한다.

○ 국민대학교 조 ○ 서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비교적 늦은 시기에 우연한 계기로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터라 이전까진 법 관련 수업을 들어 본 적도, 봉사활동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법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그러다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어 재택봉사활동이라는 점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은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소액의 각 3개 재판부씩 총 9개의 재판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전에는 재판을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언젠가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법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법정 출입구를 찾는 것이 어려워 많이 헤매었으나 점차 법정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처음 방청할 때는 재판의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으나, 모니터링을 거듭해나갈수록 재판 과정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매체에서 그려지는 재판의 모습과 달리 실제 재판은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사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이 더욱 짧으며, 하루에 생각보다 많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재판 방청을 해나가면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알 수 있었으며, 법조인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법조인이 재판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일반인 중 재판을 방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재판 원칙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겠지만, 법원의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도 원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통한 사법 감시

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재판 방청이라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 큰 기쁨이었으며, 주권시민으로서 사법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한 번도 판결문을 읽어본 적이 없던 터라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활동 설명 자료가 꼼꼼하게 기술되어 있어 판결문을 처음 읽는 저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할 때는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리서치를 더 진행하면서 갈수록 읽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으며, 쟁점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불합격처분취소의소'였습니다. 종교적 사유로 면접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3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판결이 바뀌었던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뒤집힌 타당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꼼꼼히 읽어보며 다시금 3심제의 필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총 5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며 여러 사건들을 접해볼 수 있었고, 법원의 판결을 직접 따라가 보면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활동을 하며 법과 재판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법과 더욱 가까워지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무지한 상태로 봉사활동에 임했다보니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다음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 수원대학교 조 ○ 미

2024년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신청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법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없어서 이와 관련된 방학 봉사활동을 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쌓을 수 있었고, 법적 제도와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법률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학업을 통해 법정을 방청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험한 법정 모니터링은 사건의 맥락과 법리적인 부분을 주로 분석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번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재판부가 재판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는가를 판단하고, 법정 절차와 판결 과정, 대처 방식이나 법정 환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각 재판부에 따른 태도까지 깊이 있게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배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며, 법정에서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판사의 결정이 어떻게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면서 법률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단순한 사건의 판결을 넘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이러한 통찰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더 넓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4회에 걸쳐 참여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법률적 분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 활동한 중간간미수 판결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판결에 대한 논거를 읽을 때 궁금한 점이 해결되어 흥미를 가지며 리서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리서치한 스톱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판결은 각급심의 판결이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같은 공소사실이지만 쟁점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판결

이 나올 수 있고, 어떠한 판결이 더 논리적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점차 판결문 속의 법적 논리와 적용된 법규를 파악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과 판결의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법률 용어나 판례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고해졌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리적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법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으며, 법률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지식과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법률적 관점에서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겠습니다.

○ 인하대학교 졸업 주 ○ 화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통해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해 재판에 방청하였다. 사실 방문 하기 전에 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징역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법원이 매우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연변을 다투며 치열한 공방을 이루는 장면을 많이 보아 실제 그런 일이 있나 궁금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그렇지 않고 정숙을 유지하며 차분히 재판관에게 각자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다 확인되어지기에 드라마 같은 싸움은 없었지만 선고 재판을 보았을 때 선고의 위압감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선고 받는 피고인 한명에게만이 아니라, 원고, 피고와 원고의 가족, 그 범법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혼란과 피해 사실, 게다가 이번 판례가 다음 판례에까지 미칠지 영향을 생각하면 재판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행정재판에서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국가 기관 앞에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찾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 소가 접수되어 재판이 시작된 날짜와 최종 선고가 이루어진 날짜 사이에 간격이 길수록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힘들 것 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또한 재판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재판이 있는 반면, 일반 방청을 흔하 하 는 경우가 있었기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재판장 내 모든 사람들이 판사님에게 공손하게 예를 차리는 모습을 보고 판사의 사회적 지위와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한 재판장 내에서 많은 재판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업무량이 결코 만만치 않음도 느낄 수 있었다. 검사 또한 많은 서류를 쌓아두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었다. 재판장 내에서는 판검사, 변호사 뿐 아니라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안요원이나 속기사 분들도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지켜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법을 준수하고 또 법조인이 되어 나도 이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의 그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는 일을 하였다. 처음 리서치를 시작할 때에는 사건번호부터 시작해서 당사자 이름 등 사건을 검색하는 것부터 헤매어 쉽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 번째, 네번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수월하게 서치를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또한 관련 판사와 변호사의 이전 재판 내역도 서치해 작성해야 하는데 서치가 잘 안되는 분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 봉사활동의 목적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단어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판결

문을 보면서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과 판결 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우선 판결문에 쓰여져 있는 말들이 평상시 이용하는 말이 아니고, 말투가 ~아니하지 않다.처럼 헷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서 직접 손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적고 그에 대한 판결 요지와 관련 법문을 정리했더니 여러 회독 후 이 재판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과, 주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보면서 원심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다. 3심까지 진행하면서 원고, 피고 모두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주문은 한 두줄인데에 반해 그에 대한 근거와 또 보충의견, 별지, 관련 법문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보고 쉽게 이루어지는 재판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국가의 사법시스템의 중요한 자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하는 것 또한 깊이 공감하는 바였다.

○ 숙명여자대학교 지 ○ 은

저는 학교 선배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되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대학생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면서 아직은 조금 낯선 '법'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한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외국어 번역 봉사였습니다.

물론 세 활동 모두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고 정성도 많이 들어갔지만 하나하나 완료할 때마다 더없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얻어가는 것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법원에 찾아갔을 때는 난생 처음 들어가 보는 법원에 많이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항상 열리지는 하지만 재판의 일정이 꼭 차있지 않은 날들도 많아서 허탕을 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날도 수도 없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형사재판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리는 반면 행정재판은 찾아들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고 몇 분 안돼서 끝나버리는 재판도 많아서 30분 이상 진행되는 재판을 찾아들기도 여간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법정에서 본 판사님들,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원고, 피고, 그들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간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재판의 원고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왔는데 주장은 하지만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다보니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재판을 보고 법률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 수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리서치의 경우 두 개의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의 경우도 한 사건 당 최소 10시간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되는 흐름을 볼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심판결을 제공받을 때 요즘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결문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열람'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열람비용을 결제하고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판결문리서치 가이드 ppt의 내용과는 달라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번역봉사의 경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 또한 어디서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헌법, 다른 나라의 의회 상황을 떠올려보고 비교해보면서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학기가 마무리되어 조금 여유가 있을 겨울학기에 활동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뜻깊고 뿌듯한 마음이 큼니다. 또한 제가 이메일로 활동보고서 등을 주고받으면서 수정할 것도 많았고 귀찮게 해드렸을 텐데 항상 좋은 날 되라고 따뜻하게 메일 보내주셨던 봉사연맹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지 ○ 현

2024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 판결문리서치 4회,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9회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그중에서도 판결문리서치 활동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해당 판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경제적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고, 이를 위해 판결문을 읽으며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책을 찾아보며 학습했다.

첫 번째로 분석한 사건은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사례(대법원2022두64808판결)였다. 가맹점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오랜 기간 영업해 왔으며,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는 현실적으로 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맹사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가맹본부의 행위를 불이익 제고 행위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시장 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법과 제도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이 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나 사업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대법원 2019두36001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자가 특정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종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지가 쟁점이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얼마나 쉽게 기만당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종전 거래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법적 해석이 단순히 문면에 적힌 형식적인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자가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공정거래법이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은 불리한 상황에 쉽게 놓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쉽게 기만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조정되고,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 고려대학교 최 ○ 서

2024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법조인으로서의 태도와 역량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동안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법정모니터링 활동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3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건을 직접 방청하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나의 기존 생각과 달랐던 점은, 재판 당일 검사와 변호사의 진술보다는 미리 제출된 서면 자료가 대부분의 재판 진행을 주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 접했던 재판의 진행 방식과는 다르게 실제 재판에서는 서면 자료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재판을 몰입도 높게 방청한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뉴스나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법률이 실제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선고되는지를 보며, 법률이 현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뒤집히는 과정을 보면서, 단순히 법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법률 위반 사건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을 보며,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학문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 또한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분석하며, 특허권, 부당해고, 스톱킹 범죄, 경범죄처벌법 등 다양한 분야의 판례를 읽고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심 판

결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어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판사님들의 판단이 달라지는 점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허법 관련 판결문 리서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판례는 작년 여름, B2B 회사에서 기존 주거래처와의 재계약 업무를 맡으며 해당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재계약 조건을 체결하고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협상 회의를 진행했던 경험과 연결되었습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보장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이 생겼고, 이를 토대로 해당 판례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다루는 법적 지식의 필요성은 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 관련 민사소송을 다룬 해당 판례를 통해, 특허법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실제 법적 분쟁에서 특허권이 어떻게 다루지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 외에도 번역 봉사, 언론 모니터링 등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쌓고, 법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가치관으로 감사라는 진로를 갖게 되었는데 해당 활동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하며 진로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사건과 판례를 접하며 보다 넓은 분야에서 심화된 지식을 쌓고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최 ○ 지

나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법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법이 단순히 전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았다. 또한,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은 재판이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방청하는 활동이었다. 단순히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지, 변호사들의 변론이 논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며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소액 재판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으며, 민사 재판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분쟁을 다루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또한, 소액 재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재판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헌법 번역 활동에서는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다른 문화권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 체계, 법률 용어, 사회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언어적 변환을 넘어 법철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아일랜드 헌법에서는 영국식 법체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헌법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각 국가의 국회와 입법기관의 구조를 고려하면서 번역하는 과정은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국제법률사무원 혹은 패러리걸을 진로로 삼고 있는 나에게 이번 법률 번역 경험은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 일반적으로 초보자가 직접 헌법을 번역할 기회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법적 의미가 조금만 달라져도 조항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나의 논리적 사고력과 세밀한 분

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를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는 작업이었다. 법률 문서는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나는 판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법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법률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과 그 배경을 분석하며,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해설하면서, 법률이 단순히 규정의 나열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판결문 속에서 법원의 해석이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권리가 최근 판례에서 보호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법이 살아있는 사회적 규범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률 문서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이 단순히 법조인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헌법 번역을 통해 법 체계가 국가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법률 문서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것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법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앞으로도 법률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특히 국제법률사무원이나 패러리얼이라는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법률 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를 통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이번 경험을 통해 법률 분야에서의 나의 역할과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다. 법률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도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 단국대학교 최 ○ 진

인터넷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법조인을 진로로 삼고 있었기에 법률과 관련된 활동들을 중점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음을 듣고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 한 활동으로는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 활동과 번역 봉사활동, 판결문 리서치를 위주로 수행하였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 재판을 방청해보았는데, 방청하기 전에는 방청에 대한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공개 재판보다 쉽게 방청할 수 있는 재판이 대부분이어서 신기했다. 그리고 재판을 매개체로만 접하여서 한 재판 당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재판이 속행으로 짧게 끝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대법정과 중법정에서도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법정에서의 예외적인 원칙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법정모니터링은 형사, 민사, 소액이나 행정을 각 3시간 씩 방청하여야 하는데, 덕분에 각 사건들마다의 재판 과정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법학과에서 배웠던 용어들이나 법률내용이 나타나는 모습이 신기했다. 특히 행정재판이 생소했던 만큼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다.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각자 변론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법조인에 대한 꿈을 더 키울 수 있었다.

법정모니터링 외에도 번역봉사 활동을 하였는데, 이탈리아, 자메이카, 아일랜드의 헌법을 번역하였다. 번역하기 전에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헌법이 제정된 배경, 그 나라만의 문화에 대해 먼저 조사한 덕분에 헌법을 번역하면서 위 부분들이 상기되어 수월하게 번역할 수 있었다.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헌법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에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세 나라 모두 헌법을 통해 보장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법학과에서 배웠던 우리나라 헌법 내용들이 번역 봉사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 기억이 난다. 물론 각 나라만의 법률 용어를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번역 최종본을 완성하고 나면 성취감과 그 나라의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어 다음에도 봉사활동을 한다면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기대했던 봉사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는데, 기대했던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었다. 먼저 대법원 판결문을 선택하고 관련 판결의 원심인 2심과 1심 판결문까지 조사하여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파악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판결문을 검색하는 방법부터 생소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매뉴얼을 보며 하나씩 따르다 보니 점점 수월해진 기억이 있다. 특허재판을 리서치 하였는데, 법률용어가 새롭게 접하는 것이 많다 보니 용어해설을 하면서 나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고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구별하여 작성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법 계열 활동을 구체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어 좋았던 점이 많았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뜻 깊었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 등 많은 공부가 되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꾸준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고려대학교 최 ○ 호

24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막연하게만 상상하고 있었던 재판을 실제로 방청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은 정말 의미있다고 느꼈습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하거나 학교에서 법과 연관된 수업을 듣는 일과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경험은 이번 봉사활동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첫 방청이었던 만큼 가까운 지방법원을 주로 돌아다녔는데 기회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직접 가서 방청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역봉사 또한 의미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일랜드와 자메이카 등 낯선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만큼 어색하고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점차 해당 국가의 표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보람찼습니다. 특히 헌법이란 단순한 법 조항을 넘어 한 국가의 역사나 가치관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했고 때로는 법률적 개념이 한국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며 비교 분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번역보다도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국가마다 법 체계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번역된 자료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건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내용이 정말 방대한 것도 있었고, 법 조문과 판례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정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판례를 비교

하고 핵심 논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이 어떠한 논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관련 판례에서는 금융거래의 법적 책임과 규제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가조작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적 분쟁이 생각보다 정말 복잡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판례를 정리하면서,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부동산 업계에 실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종합하면서, 법률이 단순히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 방청을 통해 재판 절차를 직접 경험하고, 번역봉사를 통해 각국의 헌법을 비교하며 법체계의 다양성을 배웠으며,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실무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서강대학교 허 ○ 주

라오스 헌법 번역과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평소 법조인을 꿈꾸며 법률 공부를 해왔지만, 직접 관련 활동을 체험해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졌다. 단순히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를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라오스의 법 체계와 한국의 법 체계를 비교하며 각국의 법률적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해석해야 했기에 더욱 신중하게 작업해야 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분석력과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또한, 번역을 진행하며 라오스의 법 체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과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직접 형사, 민사, 행정 재판을 방청하며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 증거조사, 판사의 진행 방식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재판이 단순한 법 조항의 적용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재판을 직접 방청하면서 법률적 절차와 법정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의 역할과 각자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피고인의 입장과 증인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법조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며, 법적 논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조율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행정재판에서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규범이라는 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법조인의 역할이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실무적 감각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고, 더욱 성실하게 법률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단순한 법률적 지식 습득을 넘어, 법이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법정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며,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과 객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법률 공부를 할 때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길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는 이번 활동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법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더 나아가, 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며, 실질적인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률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법률 토론회나 논문 작성 등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병행하여 법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법제도와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법적 감각도 함양하고 싶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법률 공부와 법조인으로서의 길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법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다.

○ 충북대학교 허 ○ 성

작년 가을학기부터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어 이번 겨울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번 학기 봉사활동도 그러했지만, 이번 학기 또한 보람찬 봉사활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활동 봉사는 법정 모니터링이었고, 덕분에 재판 방청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방청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형사재판 항소심 사건 중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방청을 하는 사람이 듣기에도 피고인들이 큰 죄를 지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을 참관하다 오열하며 피고인들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재판부는 감정의 요동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분명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사건을 보고 들으면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재판을 이끌어나가고, 감정이 격해지는 피해자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호사였다면 저런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저 변호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미래에 꿈꾸는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단순히 세상을 선악으로 구분하고 판단하는 자세보다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며 내 위치에서 내가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민사 재판 중 판사가 원고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원고가 재판 준비와 법적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는 법정에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이를 보며 “재판은 진실을 직접 밝혀주는 곳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끼리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법적 공방을 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 뿐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판사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억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내가 미래 법조인으로서 해야 할 일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판결문 리서치도 같이 했는데, 판결문 리서치는 하면 할수록 판결문을 읽는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져 많이 할수록 뿌듯해지는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사법체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더욱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2024년도 겨울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며 내 가 미래에 꿈꾸는 법조인의 자세에 대해 돌아보고 재정립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봉사활동 신청을 통해 내 안의 기준을 정립하고 가치관을 발전시켜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성균관대학교 홍 ○ 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헌법 번역 봉사'와 '재판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제게 법률 체계와 사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각에서 법의 역할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라트비아, 리비아, 리베리아, 레소토 국가의 헌법을 번역 하는 과정은 단순한 번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이 활동을 통해 각 국가의 정치 체계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한국어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법률 사전과 참고 자료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중략>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헌법 번역 작업은 각 국가의 고유한 가치관과 역사가 어떻게 법률 체계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주었고, 법정 모니터링은 이러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률 지식을 쌓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법률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정치 분야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고려대학교 홍 ○ 서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고 나서 제대로 입시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봉사 단체 중에서 어떤 활동이 보람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봉사활동은 제가 타인을 돕는데 의미를 찾는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은 봉사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안타깝게도 1월 한 달은 시험 준비가 있어서 활동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번역 봉사,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헌법 번역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헌법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고 다른 국가의 헌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면서 번역을 진행할 기회는 많았으나, 법을 번역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생소하면서도 즐겁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헌법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은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재판이나 사건 관련 다큐멘타리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상으로만 보던 법원을 실제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날에는 긴장도 되고 낯설었으나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어서 보람했습니다. 또한 형사, 민사, 소액 재판을 다양하게 방청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면의 법조인으로 활동하면 좋을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먼저 대화도 걸어주시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법원에서 일 하는게 실제로 어떠한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법조인으로 일하게 된다면 어떨지 미리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열정 가득 하게 활동했습니다. 로스쿨을 진학하고 법조인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황 ○ 연

가을학기에 이어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봉사

활동을 통해 내가 이바지하는 바에 비해 내가 얻어가는 것이 감사하게도, 또 부끄럽게도 훨씬 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가을학기에 첫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지난 학기에는 필수 활동인 법정 모니터링 대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였고, 이번 기회에 법정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법정에 처음 들어설 때 든 생각은 재판 방청이 참 쉽다는 것이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정에서 열리는 어느 재판이든 그저 문을 열고 들어가 앉으면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다소 엄숙하기도 했지만, 마냥 무겁게 느껴지지만은 않기도 했다. 재판내용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아무래도 형사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들이었다. 보이스피싱부터 살인 미수까지 다양한 범죄를 마주했는데 나의 일상에서는 낯선 일들이 법정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다루어진다는 것이 생경하기도 했다. 재판관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교차하고,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되는 점에서 법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다.<중략>

짐바브웨 헌법을 번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레소토와 리비아 헌법을 번역하였다. 우리나라는 단원제인데 리비아는 양원제인 점 등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 헌법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한국식으로 변환하여 번역하고 어느 정도부터 나라 고유의 체계를 반영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된다. 한국에는 없는 직책이나 명칭을 번역해야 할 때 특히 고민이 깊어진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민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고유의 종교적 특색과 통치 체제를 더 알게 되는 장점도 있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비슷한 체계를 공유하기도 해서 번역 작업을 거듭할수록 요령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어 조문 체계나 기본적인 영어 법률 용어는 검색할 필요 없이 번역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기도 했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 1789.9.28. 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화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